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6475.63	코스닥	1203.84
	(-0.18)		(+29.84)
금리	3.496	환율	1476.80
	(+0.038)		(-4.20)

# metro 경제



## 반도체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신뢰' 깨지나

## 내치 복귀한 李 에너지·부동산 등 민생 현안 챙긴다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노조, 임금·성과급 제도개선 요구 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 돌입 생산차질 뎀 데이터센터 공급병목 車·스마트폰 등 전방산업에 영향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WHCD)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 후, 비밀경호국(USSS)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을 대피시키고 있다. /AP·뉴시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현실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단기 생산 차질보다 주요 고객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중장기 핵심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DS부문을 중심으로 약 7만4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상태로, 앞서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약 4만 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로이더통신 등 외신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메모리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공급 병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동차·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닛케이아시아 역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적으로 시장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생산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회 영향으로 일부 라인 가동률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파운드리외의 경우 기흥 S1과

화성 S3 라인 가동률이 각각 큰 폭으로 낮아졌고, 메모리 생산 역시 일정 수준 감소했다는 노조측 설명이다. 다만 회사측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파업의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파업 당시에는 참여 인원이 전체 노조원의 약 15% 수준에 그치며 대체 근무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 파업은 참여 인원이 3만~4만 명, 전체의 30~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파업 현실화 시 글로벌 공급 차질 규모가 D램 3~4%, 낸드 2~3%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중동전쟁 2개월... 美-이란 2차 협상 불발

이란, 파키스탄 회담 후 출국 소식에 트럼프 "18시간 비행 할 필요 없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후속)협상이 또 성사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또 로켓 포격 등을 퍼부었다. 이는 헤즈볼라와의 휴전 연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에 파견할 예정이던 대표단의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좀 전까지 참모진이 출발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가기 위

해 18시간이나 비행할 필요 없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협상 무산 언급은 이란 측이 파키스탄에서 양자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왔다.

또 "그들(이란)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대화를 위해 앉아 있으려고 18시간이나 비행기타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당초 2차 협상을 위해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주말에 파키스탄이 슬라마바드로 보낼 계획이 있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치에 복귀한다. 일단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여

전한 만큼 핵심 품목 수급 불안 등 민생 점검에 주력할 전망이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언급하는 등 비거주투기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SNS 정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당장 큰 현안은 중동 전쟁 대응이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납사) 등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할 전망이다.

5박6일 인도·베트남 순방 마무리 비거주 투기 등 '부동산 SNS' 시동

강홍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수급 위기에 충분히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아스팔트 등 일부 원자재는 수급 위험 수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강실장은 나프타와 아스팔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과 관련,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평가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수급 상황만이 아니라 한 달, 세 달 후 상황도 예측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다만 강실장은 "원유 대체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5월 중 작년 월 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했다"면서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에도 장특공 손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향한 'SNS 정치'를 계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순방 전날인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구트위터)를 통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 폐지 의제를 꺼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 M-커버스토리

## 조합원 사망사고 항의... 9000명 집결

### 화물연대 '분노'

BGF로지스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집행위원회 '투쟁본부' 체제 전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이하 화물연대)가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의 갈등 도중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오후 경남 진

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9000여 명의 조합원이 운집해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고인의 명예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이 사고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원청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결의대회에 나선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곧 숨진 조합원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열사가 쏟아낸 선혈은 45만 화물 노동자의 분노로 모였고,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진군의 노래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측의 대응에 대해 "열사가 돌아간 바로 그날 사측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 처분을 신청했다"며 "어렵게 시작된 교섭마저 부정하며 말을 바꾸는 사측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향후 투쟁 방침을 구체화한 '투쟁지침 1호'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 집행 위원회는 즉시 '지역본부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李 대통령 매점매석 겨냥 "혼자 잘 살면 뭘 재미? 같이 살아야" 지적  
▲장동혁 "美서 만난 인사, 차관보나 그 이상... '직할 부풀리기' 아냐" /사진 뉴시스

▲법원, 장동혁 따라다니 친(親)여 유튜브에 100m 접근금지 명령 판결  
▲박준태 "장동혁 지도부 향한 내부 비판 선 넘어... 선거에 도움 안 돼"

▲서영교 "원내대표 불출마할 것...국조위원장·법사위원장 역할에 집중"  
▲野, 국회의원 재보선 구인난... 지지율 하락에 10곳 중 9곳 인물 없어

# 신동빈 회장, 베트남 현장경영 건설·소재·물류 등 신사업 주문

(롯데그룹)

베트남 진출 계열사 사업현황 점검  
국가주식 보좌관 등 주요인사 회동  
“식품·유통 등 시장 경쟁력 강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찾아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을 펼쳤다. 신 회장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롯데몰·롯데마트 매장을 시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섰다. 신 회장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와 롯데센터 하노이 등 주요 사업장을 시찰했으며, 부 다이 탕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하노이시의 발전 및 양국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3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계열사의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2023년 9월 정식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그룹 계

열사의 핵심 역량을 집대성한 대형 복합물이다.

신 회장은 “베트남은 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로 식품과 유통 등 주력 사업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주력 사업은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도시 건설, 친환경 소재 산

업, 선진 물류 등 신사업 개척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신 회장은 22일 부 다이 탕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또 안 쏘 당서기장 및 국가주식 보좌관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AI發 반도체 호황… 4월 수출 역대최대 전망

월 수출 700억 달러 돌파 분석도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러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은 물론, 월 수출액 700억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4% 급증한 5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4월(364억 달러)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399억 달러(17.7% ↑)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04억 달러 흑자다.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4분기 반도체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달에는 328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바 있다. 이달 1~20일에도 이미 183억 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는 물론, 두 달 연속 3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399%), 석유제품(48.4%)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승용차(-14.1%), 자동차 부품(-8.8%)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수출이 70.9%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미국(51.7%), 베트남(79.2%), 대만(77.1%) 등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해당 지역 수출은 49.1%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불과해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수출액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32억5000만달러로, 지난달(35억5000만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로 보면 49.4% 증가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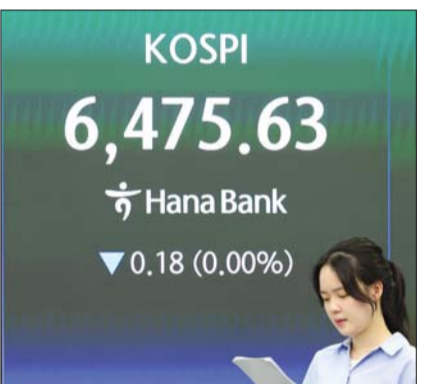
통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 위상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피지컬 AI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호황이 향후 1년 이상은 거뜰히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상승장 떠나는 개인… 월간 최대 순매도 전망

개인, 이달 들어 14.7조 순매도  
외국인, 2.5조 순매수… 대조적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삼전 얼마까지 보나? 2024년에 9만원 옥심내다가 2년여 동안 고생했잖아. 오늘 팔까?” 금융사 이모(43) 차장은 지난 22일 일흔 노모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팔고 싶은 눈치였다. 삼성전자 때문에 시퍼렇게 멍들었던 계좌가 올해 본격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쓴 랠리에서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는 날마다 기록적으로 팔아치우고 있다.

중동 협상 기대감이 커진 4월 들어 24일까지 개인 순매도(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것) 금액은 약 14조8000억원. 특히 주가가 천장을 뚫고 6300선 위로 올라간 21일에는 1조9204억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쏟아냈다. 반면 지난 24일 코스피 상승세가 주춤하자 1조1832억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 여의도에서는 “오르면 본전 되자마자 팔고, 조금 내리면 사는 게

미들의 고질적인 투자 패턴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7670억원 순매도했다. 이미 월간 기준 지난해 9월 기록한 역대 최대 순매도액을 넘어선 상태다. 이달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2조5300억원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달 들어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순매도액 6조5810억원), SK하이닉스(2조4980억원)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2, 3위 종목이 S

K하이닉스, 삼성전자였다.

개인들이 ‘셀 코리아’에 열심인 것은,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불장 때 아픈 기억 때문이다. 당시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워낙 많았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편향적 행태(bias)가 발견됐지만, 개인 직접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그 특징이 더 선명하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주가 급등기인 2020년 3~10월 대형 증권사 4곳 고객 20만명의 일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미들은 ▲ 이미 급등한 주식을 뒤늦게 사고(과잉확신), ▲ 사서 조금 오르면 금방 팔거나, 내려도 손절하지 못하고(처분효과), ▲ 극단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을 쫓고(복권형 주식 선호), ▲ 때로 몰려다니는(군집 거래) 등의 크게 4가지 경향이 관찰됐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 분석보다는 수급이나 가격, 그날의 뉴스를 보고 주식을 도박처럼 사고파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herjeon@metroseoul.co.kr



metro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최대 60만원

내달 8일까지 접수… 4개월간 사용

고유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돼,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순이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기존 4·9번뿐만 아니라 5·0번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며,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고객사 확보·장기 공급계약 등 악영향

>> 1면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서 계속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생산량 감소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노사 갈등에 따른 반도체 공급 일정과 고객사 대응에 미칠 영향을 더 큰 변수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HBM과 서버용 D램 등 AI 인프라용 고부가 메모리는 고객사 인증과 납기 일

정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공급 타이밍이 어긋날 경우 데이터센터 구축과 서버 출하 일정, 나아가 고객사 AI 칩 출시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확대된다.

문제는 이 같은 리스크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완제품 생산 일정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공급이 지연될 경우

후방 공정뿐 아니라 완제품 생산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HBM 납가가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계약 이행 측면에서도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는 고객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노사 리스크가 반복되면 장기 공급 계약이나 차세대 제품 인증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oogija@metroseoul.co.kr

# 美 만찬장 총격… 트럼프 “전쟁 관련없어”

>> 1면 ‘중동전쟁 2개월…’서 계속

협상에 진전이 있을 시, 1차협상을 이끌었던 JD 밴스 부통령이 나중에 합류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측과의 회담에서 전쟁 종식과 관련해 이란 정부의 ‘원론적’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오만에 도착한 뒤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외교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워싱턴 D.C. 모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도중 인근의 총성에 급히 피신했다. 25일 2차 협상이 무산된 직후의 사건이다.

트럼프는 이후 “총격범이 나를 노린 것 같다. 대 이란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imyense@metroseoul.co.kr

# 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CU 사태, 원청 책임론으로 확산

## m-커버스토리

### ‘실질 사용자’ 판단 쟁점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질적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대형 시험대가 됐기 때문이다.

2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거진 대표적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

### BGF리테일 지배력 인정 여부 쟁점 정부, 직접 교섭 필요성 이례적 언급 계약 당사자 아니라는 논리 흔들 사용자성 확대 기준 놓고 논란 가열

지난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했다. 차주들은 하루 13~14시간의 고강도 노동에도 월 순소득이 320만 원 수준에 그치는 현실과,



25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 ‘열사정신 계승! CU 투쟁승리!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5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휴식을 위해 대리 기사를 쓸 경우 하루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마이너스 노동’ 구조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갈등의 외형은 CU라는 특정 기업의 노사 문제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용자 정의의 확대’라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계는 원청-자회사-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

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원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 BGF리테일 역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가장 과격적인 메시지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노란봉투법 자체보다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BGF리테일을 ‘실질적 원청’으로 명확히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진행자의 “이 사건 원청이 BGF리테일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운송 기사들이 거기(원청)와 직접 교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수장이 특정 기업을 지목해 교섭 의무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편의점 가맹점주나 화물 노동자가 형식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의 매뉴얼과 물량 배정에 종속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편의점주가 시·종업 시간을 결정할 수 없고 매장 물건도 본사가 정해준 대로 한다면, 실질에서는 종속돼 있으므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례적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사용자 범위의 무한 확장’이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승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발생한 참사”라며 BGF리테일의 사용자성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지의 죽음은 자본의 폭주와 공권력의 비호 속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와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도미노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대다수 유통 대기업이 물류 자회사를 통한 위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BGF리테일이 교섭에 응하는 선

례를 남길 경우 유사한 요구가 전 산업 계로 확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점 브랜드 직원들과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입점 브랜드 직원이라 할지라도 원청인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이번 CU 사태에서 제기된 원청 책임론과 궤를 같이한다.

### 다단계 위탁 구조 책임론 수면 위로 백화점·면세점 교섭 판단과 맞물려 노동계, 운송료 현실화·처우개선 요구 산업계, 원청 교섭 선례 확산에 긴장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계약서상 명시된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 전반에 원청의 통제가 개입된다면 향후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적 교섭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가처분 취하와 성실 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보험계약마진 늘었지만 순익 30% 급감... 보험사 ‘이익 전환력’ 부각

### CSM 확대에도 당기순익은 악화 손해율·투자손익 등 단기 변수 영향 금융지주 보험계열 합산 순익 4507억 비은행 실적 주도권은 증권사로 이동

금융지주 보험계열사들이 올해 1분기 미래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고도 당기순이익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보험사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CSM 규모에서 실제 이익 전환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 KB라이프,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금융지주 보험계열 5곳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단순 합산 45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511억원과 비교하면 30.8%(2004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보험계열사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외형 축소와는 결이 다르다. CSM 지표가 확인되는 주요 보험계열사들은 미래이익 기반을 늘렸지만, 당기순익은 손해율과 투자손익, 예실차 등 단기 변수에 흔들렸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인식할 미실현 이익을 의미한다. 다만 CSM이 늘었다고 당장 당기순이익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CSM은 장기간에 결



KB손해보험.

쳐 보험손익으로 상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분기 실적은 손해율, 예실차, 금리 변동, 유가증권 운용손익, 보험 금융비용 등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 ◆ CSM은 증가... 순익은 감소

KB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순이익 200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0% 감소했다. 반면 CSM은 9조4776억원으로 같은 기간 6.2% 증가했다. 장기보험 CSM 상각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투자손익도 줄면서 전체 순이익이 감소했다.

KB라이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분기 순이익은 798억원으로 전년 동기



신한라이프.

대비 8.2% 줄었지만 CSM은 3조4408억원으로 15.1% 증가했다. 신계약 CSM 유입으로 장기 수익 기반은 개선됐지만 보험영업손익과 투자영업손익이 모두 줄면서 당기순이익은 뒷걸음질했다.

신한라이프는 순이익 감소폭이 더 컸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는 부진의 배경으로 예실차 손실 확대와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한 금융손익 감소를 제시했다. 다만 CSM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 증가했다.

NH농협금융보험계열사 실적은 엇갈렸다. NH농협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NH농협손해보험.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651억원보다 58.2% 감소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399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전년 동기 204억원보다 95.6% 증가했다. 전년도 영남권 산발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계약 확대가 반동 요인으로 작용했다. NH농협손보의 기말 CSM도 1조667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5% 늘었다.

#### ◆ 비은행 주도권, 보험보다 증권

금융지주 내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보험사는 은행 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핵심 비은행 축으로 평가받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증권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계열사가 비은행 실적을 주도했다.

KB금융은 1분기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43%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KB증권의 순이익은 3478억원으로 KB손보 2007억원, KB라이프 798억원을 웃돌았다. KB금융 전체 순이익 증가 요인에서도 순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파생·외화환산손익 증가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보험영업 손익 감소는 감익 요인으로 반영됐다.

신한금융도 자본시장 부문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신한금융의 자본시장 부문 순이익은 3232억원으로 보험업 부문 순이익 935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신한투자증권 순이익만 2884억원으로 신한라이프 순이익(1031억원)의 2배를 넘었다. 그룹 전체로는 비이자이익이 9393억원에서 1조 1882억원으로 늘었지만, 보험업 순이익은 1606억원에서 935억원으로 줄었다.

NH농협금융에서는 이 흐름이 더 선명하다. NH농협금융의 비이자이익은 5971억원에서 9036억원으로 51.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순이익은 2082억원에서 4757억원으로 128.5% 늘었고, NH-Amundi자산운용도 8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17.5% 증가했다. 반면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보의 합산 순이익은 855억원에서 671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오토차이나 2026

# 현대차, '아이오닉' 中 론칭... 20개 모델·50만대 판매 목표

(2030년까지)

첫 주자로 전기 SUV '아이오닉 V' 현지기술 협업 '中 전동화' 전략 자율주행·中 디지털 생태계 연결 핵심전략으로 '스마트화' 설정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왼쪽 두번째)과 우저우타오 베이징현대 동사장(왼쪽 세번째) 등이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 국가전람중심에서 한국 언론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첨단 기술의 격전지인 중국에서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람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6 오토차이나'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서강현 현대차 기획조정담당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사장, 이상엽 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 지성원 HMG브랜드 경험담당 부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

장재훈 부회장은 "중국은 많이 배우고 연어할 시장"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동화와 스마트화는 이미 보편화된 만큼, 그 안에서 현대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적 포인

트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오닉 V(비즈니스)부터 시작하지만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전략 등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기대하고 집중하겠다"며 "현대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적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 재공략을 선언하며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IONIQ)'을 전면에 내세웠다. 첫 주자는 전략형 전기 SUV '아이오닉 V'다. 현지 기술과 협업을 강화한 '중국형 전동화' 전략으로 2030년까지 50만대 판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날 진행된 글로벌 미디어 간담회에서 "중국 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EV) 시장이자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라며 "가격뿐 아니라 상품성, 디자인, 서비스까지 포함한 경쟁력에 현지화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에 공식 론칭하며 단순한 브랜드 공개를 넘어 구체적인 제품·사업 전략을 함께 내놨다. 2030년까지 총 20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 판매 50만대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오닉 V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이 집약된 차량이다. 6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함께 CATL 배터리, 모멘타(Momenta) 기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현지 기술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현대차는 중국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과 스마트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 CTO 허재호 전무는 "모멘타와 협업해 레벨 2+ 수준 자율주행을 구현했고, 향후 더 높은 수준까지 공동 개발을 검토 중"이

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두 기반 AI 음성인식, 지도, 위젯 연동 등 중국 디지털 생태계와 연결된 기능을 적용해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차량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전동화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스마트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동화는 기본이며, 중국 소비자 특히 젊은 층은 스마트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오닉 V에 대해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트렌드를 따르는 안전한 선택 대신, 시장에 없는 혁신적 디자인을 택했다"며 "중국 시장에서 눈에 띄고, 사용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보이며 '유연한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베이징(중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초급속 충전·AI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기술 한자리에

출품 1451대... 세계 최초 공개 181대 中, 가성비 벗고 프리미엄 모델 제시 BYD 5분·CATL 6분 완충 배터리 현대차·벤츠·BMW 등도 대거 출격

프리미엄 모델이 담고 있는 럭셔리와 첨단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람센터 순의관에서 막을 올린 '2026 오토차이나'는 세계 친환경차 산업의 흐름을 가늠하고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장 규모는 총 38만㎡(제곱미터)로 세계 모터쇼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전시 차량은 총 1451대로,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차량이 181대로 역대 최대급이다. 특히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모델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였던 중국 업체들은 프리미엄 모델을 잇따라 선보이며 과거와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중국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 BYD는 오션 시리즈의 차세대 플래그십 SUV인 씨라리언 08과 플래그십 세단 쉐일 08을 공개했다. 특히 씨라리언 08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5분 충전만으로 10%에서 7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 기술 '플래시 차저'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BYD는 '5분충전, 9분 완충, 영하 30도에서도 추가 3분'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배터리 1위 CATL은 이날 '신성 3세대' 배터리를 공개하며 BYD에 맞불을 냈다. 10%에서 98%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6분 27초

로 전기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다.

올해 국내 진출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지리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신형 009를 비롯해 9X, 8X 등 주력 럭셔리 모델을 공개했다. 전기 MPV와 대형 하이브리드 SUV로 고급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신형 009는 부분변경 모델로 기존 모델에 더해 7인승 사양을 새롭게 추가했다.

최근 출시한 슈퍼하이브리드 SUV 8X는 900V 고전압 시스템과 3개 전기모터를 탑재했다.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은 1030kW(약 1400마력)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96초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은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인 신형 SUV 'GX'를 공개하며 'AI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샤오펑은 2세대 지능형 보조주행 시스템 'VLA2.0'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한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과거 보조주행이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수준이었다면, VLA2.0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좁은 골목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 업체로 더 잘 알려진 샤오미는 레이첼 회장이 직접 신차 YU7 GT와 이 차의 스포츠카 버전인 비전 GT 콘셉트카 실물을 소개했다. 1000마력 이상의 출력, 최고 시속 300km까지 낼 수 있는 YU7 GT는 완충 시 705km를 달릴

수 있다. 미래형 슈퍼카 비전 GT는 정지 상태에서 단 1초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이 350km를 넘는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중국 전략형 양산 모델 아이오닉 V와 중국 기술 기업 모멘타와 협력한 자율주행차, 주행거리연장형차(EREV) 등을 공개하고 신에너지차 브랜드로의 대전환을 선언한다.

벤츠는 중국 모멘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와 디올-뉴 일렉트릭 GLC를 선보인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아우디, AUDI 등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공개하고, BMW 그룹은 7시리즈 부분 변경과 미니 브랜드 신차 등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샤오펑과 공동 개발한 ID.유닉스 모델을 처음 공개했다.

/베이징(중국)=양성운 기자



metro

## AI 전력 병목 대안에 '선박엔진'... 모듈형 설계·활용도 등 강점

HD현대중공업, 美 AEG에 공급계약 STX엔진, 데이터센터 맞춤형 고도화



HD현대중공업의 육상 발전용 힘센엔진(HIM SEN). /HD현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확보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 가스터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납기가 짧고 모듈형 확장이 가능한 선박용 4행정 중속엔진이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오는 2030년 약 945TWh로 현재의 두 배 수준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4~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5%로, 다른 산업보다 4배 이상 빠르다. 반면 전력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전투자증권은 대형 가스터빈 납기가

2029년 이후로 밀린 반면 중속엔진은 2028년부터 공급이 가능해 1년 이상 납기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소형 가스터빈과 중속엔진을 병렬 구성하는 '클러스터링'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핀란드 엔진 기업 바르질라는 중속엔진 기반 발전이 데이터센터 전력원으로 구조적 장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여러 대의 엔진을 병렬로 구성하는 모듈형 설계가 가능해 일부 설비에 고장이나 정비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엔진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

로 수백 메가와트(MW)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빠른 시동과 출력 조정 능력도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요소로 꼽힌다. 가스·유연연료·액체연료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운영 유연성도 높다. 향후 저탄소 연료 전환과 환경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국내 엔진업체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실제 수주를 통해 시장 진입에 나섰다. 회사는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기업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AEG)에 20MW급 '힘센엔진' 기반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684MW, 6271억원 규모로 해당 설비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에 활

용될 예정이다.

STX엔진은 기존 4행정 중속엔진을 데이터센터 환경에 맞게 고도화한 모델을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16V 32/40 하이 다이내믹'은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AI 워크로드에 필요한 전력 품질 기준을 반영한 제품이다. ISO 8528 G3 성능 등급과 10초 이내 기동 가능한 블랙스타트 기능을 갖췄으며, 고속엔진 수준의 과도응답 성능을 구현해 급격한 부하 변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STX엔진은 단일 7MW급 시스템 기준으로 고속엔진 대비 초기 투자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운영비와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신한 新韓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름으로 삼은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금융으로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금융으로 대한사람이 행복하게

신한의 사명감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6·3지선' 민주당 10곳 우세... 부산·대구·서울 막판 격전

여론조사서 경북 1번 대부분 우위 TK·부울경, 보수층 결집 움직임 후보 확정 후 판세 변화 '최대 변수'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상으로는 경북을 1번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보수 결집 양상이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기·충북·대구 등 3곳을 1번 13곳 광역단체 가운데 10곳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이날 추경호 의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 역시 이후 여론조사를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 지역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캐스팅 보터'인 충청권(대전·충남·세종)역

시 전반적으로 여당에 기운 모양새다. 거기에다 상대적 힘으로 꼽히는 강원에서도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이나 부산, 울산도 어느 정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다만 부산이나 울산은 오차범위 내 결과가 많았다. 경북은 국민의힘이 크게 앞선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선 20대 대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지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양당 지지를 격차 역시 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정권 지원론'이 우세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을 차지한다면,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 울산, 경남 등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일단 부산은 국민의힘 후보로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

격차를 줄이는 모양새다. 후보가 확정되자 지지층이 결집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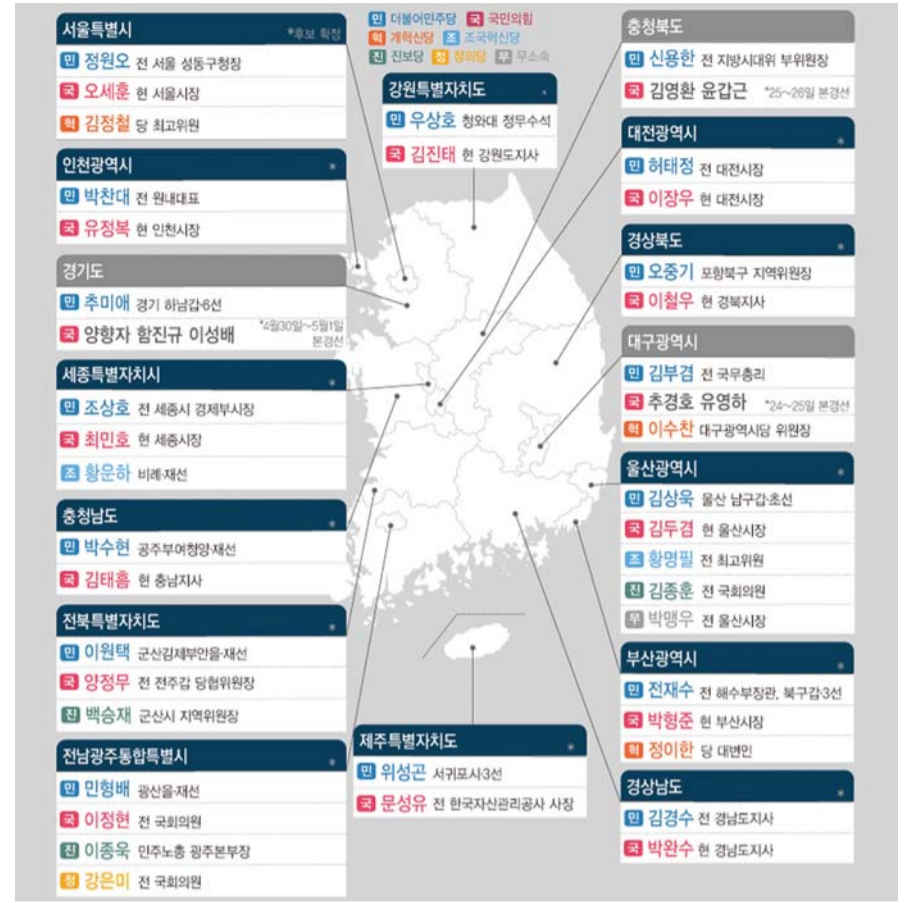
대구의 경우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최근까지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마로 보수분열 우려가 사라지면서 세 결집이 가속화될 수 있다. 울산과 경남 등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무난하고, 부산과 대구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도 여론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서울시장 선거역시 정영오 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상 격차가 살짝 줄어든 상태다. 이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

이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후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야 주요 후보 현황> (23일 오전 각당 발표 기준) /그래픽 뉴시스



## 김부겸 선거사무소,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文 전 대통령, 축하 영상으로 지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중앙당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신공항 신설 지원 등을 언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서구에 있는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 최고의 '스타 마케팅'을 원한다면 김부겸"이라며 "대구에서 김부겸은 확실한 필승카드"라고 했다.

이어 "제가 '오랏차차 김부겸'을 카피로 정해왔다"며 "땀은 영어로 RAT(Robot·AX·TK 신공항)인데, 로봇(Robot) 수도 대구를 만드는 데 전담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AX(AI 전환) 수도를 만드는 데 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K 신공항을 만드는 데 당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대구·경북, 경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26일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구 통합 문제도 김부겸이 (당선) 되자마자 당의 사업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김부겸과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그냥 다 해드립니다 센터'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열쇠이고 지름길"이라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의 선거는 김부겸의 얼굴로 치르고, 중앙당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며 "김부겸이 당대표 보

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않고, 뒤에 서있으려면 그렇게 하며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인사시키며 "대구 시민들께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대구에서 세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구를 사랑한다"며 "대구를 사랑하는 만큼, 저는 대구에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할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대구·보수 대통합 이뤄낼 것"

국민의힘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3선 중진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을 확정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25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추 의원은 유명하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덧발' 수성에 나선 추 의원의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다.

1960년생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 출생으로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관료로서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



고, 2016년 제20대 총선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되며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지역

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한 후, 제22대 총선에 출마해 75.31%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추 의원은 2024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같은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국수부족으로 불성립된 직후 사퇴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후보 수락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꿈꾸고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이 대통령 "비거주 양도세 감면, 투기 권장"

>> 1면 '내치 복귀 후'서 계속

또 순방 마지막날인 지난 24일에는 '장특공 폐지 논란' 기사를 공유하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권장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특공은 집이나 땅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세를 덜 내게 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해당 의제를 꺼낸 후 야권은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되

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걸 보여주며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발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비거주 투기'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언급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으로 삼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 서영교, 민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시사

"국조·법사위원장 역할 집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사실상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시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출마를 고심했지만, 이번에는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법



제사법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경제입법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각기소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질렀던 만행(조작행위)들을 모두 밝혀 국민께 보고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 경악할 일들"이라며 "최선을 다하며 진상을 규명해내고 계시는 국조위원들과 윤석열 정치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조작을 낱날이 더 밝혀내 꼭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3만 가구’ 이상 뉴타운 탄력… 국평 17억 ‘고분양가 뉴노멀’

## 부동산 현장 르포

### 총 15개 구역 ‘장위뉴타운’

돌곶이역 역세권에 숲세권 ‘장점’ 최근 13-1·2구역 신통기획 확정 용적률 230%→300% 상향조정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84㎡ 기준 분양가 예상보다 2~3억 급상승

지난 24일 찾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북서쪽의 숲방향으로 돌곶이로가 이어진다. 대로를 따라가면 양쪽으로 신축 아파트 건물과 재개발 공사장이 눈에 들어 온다.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재개발지구, 이른바 장위뉴타운은 숲세권과 역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서울 동북권 대표 재개발지로, 총 3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 시차가 벌어져 구역별로 동네 분위기는 상반된 모습이다. 돌곶이로 기준으로는 동쪽에는 입주를 마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반면 서쪽은 공사장과 노후 주택이 뒤섞여 있다. 동쪽의 1·2·4·5·7구역은 개발이 완료됐



돌곶이로를 경계로 동쪽(왼쪽)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서쪽(오른쪽)은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고, 6구역(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은 공사가 한창이다. 서쪽은 입주를 마친 단지가 없지만 미개발 구역이 정비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장위뉴타운 13-1·2구역에 대한 신축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300%로 상향되고, 가구 수는 5900가구로 확대된다. 2006년 재개발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마지막 대규모 구역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뉴타운 전체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여기에 내달 분양을 앞둔 장위10구역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에도 관심이 쏠

린다. 총 1931가구 중 1031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장위초를 품은 ‘초품아’ 단지다. 입지와 규모만 놓고 보면 흥행 기대감이 적지 않다.

### ◆국평 분양가 17억원?

그러나 시장의 지배적인 반응은 기대감보다 당혹감에 가깝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분양가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5200만~5300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최고 1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

인다.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가 불과 2년 전에 같은 평형이 12억원 안팎에 분양됐다. 4억~5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3.3㎡당 2800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더 크다.

현장에서 예상 분양가를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인근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국평 기준으로 16억~17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예상보다 2억~3억원 이상 오른 것”이라며 “최근 분양가 상승세를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이 정도로 뛰어 버리니 무섭다”고 했다.

### ◆완판 행진…고분양가 ‘뉴노멀’

최근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고분양가 흐름이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강서구 ‘래미안 엘라비네’와 영등포 ‘더샵 프리엘라’ 등에서 전용 84㎡ 기준 18억원대 분양가가 속속 등장했다. 노량진 ‘라클라체 자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보다 비싼 가격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공급 부족 우려와 신축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일단 서

울이면 잡고 보자’는 심리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돼도 수요가 버텨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일부에선 장위동에도 수요가 이어질지 물음표를 던진다. 고분양가 흐름에 올라탔지만 가격을 뒷받침할 수요가 충분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장위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노량진처럼 위치가 좋으면 고분양가에도 수요가 붙지만, 장위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미개발 구역 사업이 본격화하면 장위 뉴타운은 신도시급 대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동북선 경전철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교통·개발 호재도 기대 요인이다.

현장에서는 특히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장위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은 강남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GTX-C와 동북선이 연결되면 핵심 지역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 교보 3세 신중현, SBI저축 경영 합류 … 시너지 기대감

시너지팀 초대 팀장… 양사 협업 총괄 “교보생명 넘어 계열사 시너지 모색” 단순 인사 넘어 ‘경영 승계’ 가능성

교보생명 오너 3세인 신중현 글로벌 제휴담당(사진)이 SBI저축은행 경영에 합류하면서 시너지 확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중현 담당은 SBI저축은행 시너지팀 초대 팀장을 맡았다. 교보생명과 SBI저축은행의 주요 경영 현안을 동시에 맡으며 양사 간 협업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인사는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이뤄졌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SBI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기존 최대주주인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로부터 지분 50%+1주를 약 9000억원에 인수했다.

신 팀장이 이끌 시너지팀은 경영전략본부 직할 조직으로, 보험과 저축은행 간 협업 전략 수립과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신사업 발굴을 담당하게 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시너지팀은 교보생명 뿐만 아니라 교보 계열사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보는 조직”이라며 “이외에도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부처와 협업해 다양한 신사업 발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인적 결합을 통해 SBI저축은행의 수익 확대도 모색할 것으

로 예상한다. 과거 교보생명과 연계한 수신 상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만큼, 향후 대출과 예금 등 영역에서 협업이 확대될 경우 SBI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너지 창출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교보생명의 대출 고객을 SBI저축은행이 일부 담당할 수도 있고, 교보증권도 있으니 증권 쪽과 협력해 기업 금융 쪽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팀장의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보생명 글로벌제휴담당에 이어 SBI저축은행 신설 조직까지 동시에 맡게 되면서 책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두 조직 모두 그의 부임에 맞춰 신설된 만큼 전례가 없는 역할을 수

행하게 됐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시장은 이번 인사를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경영 승계 신호로도 해석한다. 오너 3세가 계열사 경영에 본격 참여하면서 교보생명의 종합금융그룹 전환과 지주사 체제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관측이다. 신 팀장이 저축은행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단계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팀장은 1986년생으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의 차남이다.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 석사학위(MBA)를 취득했으며, SBI손해보험과 SBI스미신넷뱅크를 거쳐 2020년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입사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첫번째)이 레 응옥 럼 BIDV 은행장(오른쪽 첫번째), 김복한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

### 韓-베트남 인프라 협력 현지은행 등 2곳과 맞손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투자개발은행 및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와 ‘베트남 및 해외 인프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3사는 인프라 및 에너지, 도시개발, 녹색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우량투자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회사인 GLN인터네셔널 등과 제휴해 베트남 방문 한국 관광객 대상 QR 결제 서비스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QR 결제 서비스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공식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나은행은 한국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정식 은행으로 참여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과 서비스 개시는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하나은행의 글로벌 금융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유리 기자 yul115@

##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수주 총력전

조합에 ‘맞춤 마스터 플랜’ 제안 용적률 299%, 분양 면적도 확대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를 위해 사업성을 높인 설계를 내놨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신반포19차·25차 통합 재건축 조합에 ‘통합 재건축맞춤마스터 플랜’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사업은 각 단지의 입지와 조건, 기존 정비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

지 전체의 균형감 있는 설계가 핵심”이라며 “4개 단지의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단순히 상품성을 높이는 제안을 넘어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재건축의 최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리오센트, 반포 리체 등 반포 지역의 주요 통합 재건축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강남아파트 등 총 6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한 사업으로 단지별 상이한 사업조건 조율과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먼저 삼성물산은 19차와 25차 크게 두 축으로 용적률과 분양면적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대세대 비율은 조합의 원안 설계 그대로 유지했다. 통합 재건축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조합원 선호를 반영한 평형조정 등 최상의 설계를 통해 양측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299.99%로 끌어올렸으며, 이를 통해 분양면적을 각각 64㎡(19.4평)만큼 균등하게 늘렸다. 예를 들

어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1억원으로 고정했을 경우 약 39억원의 추가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반면 임대세대는 조합의 원안설계와 동일하게 19차 34세대, 25차 41세대를 그대로 유지해 향후 단지 간 분쟁 발생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불안요소를 원천 차단했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반포의 새로운 상징이 되는 단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통합 재건축의 핵심인 균형 잡힌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사업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삼성, 테슬라 추가수주 기대 파운드리 사업 반등 '청신호'

일론 머스크, AI칩 양산 언급  
삼성 美 테일러 공장 이목집중  
"파운드리 수익성 긍정적 작용"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추가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반등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AI4 업그레이드 칩 생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사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적자가 이어진 삼성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분기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 22일 실적발표회에서 "회사의 AI 칩 'AI4'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며 "양산 시점은 내년 중반쯤으로 예상 하지만 삼성이 우리를 위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국 삼성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로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해당 칩은 지난 2023년 양산된 AI4의 연산 성능과 용량을 높인 제품이다. 아직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AI4+ 또는 AI4.1로 불린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앞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테슬라의 AI4와 AI6칩 생산을 수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머스크 CEO를 통해 공식화된 AI6 수주 계약 규모는 약 23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번 AI4.1 제품 수주까지 더해지면 양사의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개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30일 삼성전자는 1분기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 예정이다. 이날 테일러 공장의 구체적인 가동 시점과 고객사 협력 현황 등 파운드리 전략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공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57조2000억원으로 메모리 비중이 95%에 달한다. 반면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은 1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을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AI4에 이어 AI4.1까지 삼성 파운드리가 맡게 되면 단순 추가 수주를 넘어 고객사 로드맵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 7나노 공정을 활용한 반복 수주는 신규 수요 창출과 가동률 개선 측면에서 파운드리 수익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SK하이닉스, 'IEEE 어워즈' 기업혁신상

혁신적인 HBM 솔루션 선제 제시  
글로벌 AI 컴퓨팅 확산 이끌어

SK하이닉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어워즈 기념식'에서 기업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IEEE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술 전문가 단체로, 인류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해당 단체가 주최하는 'IEEE 어워즈'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상식으로, 메달, 기술 분야상, 공로상 등 3개 부문에서 기술 혁신과 사회 발전을 이룬 수상자를 선정한다.

공로상에 속하는 기업혁신상은 혁신 기술로 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198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SK하이닉스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모든 세대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퓨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며 "AI 플랫폼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HBM 혁신과 응용을 통해 AI 컴퓨팅 확산을 이끈 공로에 대한 것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혁신적인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 IEEE 어워즈 기념식에서 기업혁신상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SK하이닉스

HBM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한 점이 주효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강조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 기조 아래 미국 내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꾸준히 넓혀온 행보도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이 회사 대표로 참석해 수상했다.

안 사장은 "기술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를 극복해 온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글로벌 고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를 앞서 만들어 내며 AI 혁신을 이끄는 일류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전력기기업체, 북미 중심 실적개선 본격화

LS일렉트릭 1분기 영업익 45% ↑  
효성중 신규 수주 4.1조... 분기최대  
HD현대일렉트릭 매출 1.1조 전망

국내 전력기기업체들이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766억원, 영업이익 126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5% 증가했다. 전력 사업 매출은 9584억원으로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1056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수주 기반도 확대됐다. LS일렉트릭의 1분기 말 수주잔고는 5조6425억원으로 2025년 말보다 13% 늘었다. 북미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송배전 장비와 전력 솔루션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효성중공업도 초고압 변압기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582억원, 영업이익 15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2%, 영업이익은 48.8% 증가했다. 수주 성과도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월 787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확보했다. 여기에 수익성이 높은 미국 송전망 프로젝트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1분기 신규 수주는 4조1745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15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HD현대일렉트릭도 실적 확대가 예

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D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1조1082억원, 영업이익을 2708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24.1% 증가하는 수준이다.

주요 업체들이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만큼 수주잔고의 매출 반영은 향후 실적 안정성과 성장 여력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 전력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 수요가 확대됐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국내 전력기기업체들의 수주 환경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HD현대, 美 해군연구청 연구과제 2건 수주

합정성능 개선·첨단제조 기술 개발

HD현대 미국 해군연구청(ONR)으로부터 합정 성능 개선 관련 연구 과제 2건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ONR과 연구 과제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NR은 미 해군성 산하 기관으로,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한다.

HD현대는 이번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합정 성능 개선 기술을 개발한다. HD현대중공업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용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또 합정 건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제조 기술 개발 과제도 맡았다. 해당 연구는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 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HD현대는 미 해군과 합정 개발부터 건조 기술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협력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합정 분야 첨단 기술력을 미 해군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합정·중형선 사업대표 사장은 "이번 ONR 과제를 수주를 계기로 미국과 합정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K-해양방산의 영토를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포스코, 철강 거래사 지원 확대... 수출 경쟁력 높인다

국제강재 등 7곳 수출대응 여력 개선

포스코가 관세 장벽과 고환율로 자금 부담이 커진 철강 거래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며 수출 공급망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1월부터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철강 거래사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재원으로 포스코 거래사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보증 비율은 100%다. 기업은행은 시중금리 대비 최대 2% 수준의 우대대출과 보증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담보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보증·금리 우대 조건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강재와 티지에스스파이프 등 철강 거래사 7곳은 금융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수출 대응 여력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기존 약 7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펀드와 철강 ESG 상생펀드에 이번 프로그램을 더해 철강 거래사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거래사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철강 생태계 강건화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삼성 냉난방공조 제품, 獨 소비자 만족도 1위

ITQF 선정... 생활가전 전반 저력 입증

삼성전자 히트펌프와 에어컨 등 냉난방공조 제품이 독일 품질금융연구소(ITQF)가 실시한 '최고의 가격대비 품질 2026' 조사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최대 브랜드 선호도 조사 비영리기관인 ITQF는 2021년부터 매년 해당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삼성전자는 2022년 신설된 히트펌프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에어컨 부문에서도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EHS 올인원'은 실외기 한 대로 공기 냉난방과 바닥 냉난방, 급탕까지 제공한다. 특히 공기와 물을 동시에 활용해 공기와 바닥 냉난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은 사용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과 진공청소기 부문에서 각각 6년 연속,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생활가전 전반에 걸친 브랜드 저력을 입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공공기관 65곳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상생 노력 확산

중기부, 2025년 133곳 평가 결과 우수 이상 기관 전체 67.7% 차지 소진공·SR 등 15곳 첫 최우수 진입 상생협력기금 394억으로 확대 상생결제 금액 3510억까지 늘어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65개 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 모범기관이 됐다.

하지만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11개 기관은 가장 낮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도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



한국중부발전 본사.

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뉴시스

우수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보통 13개 기관(9.8%) ▲개선 필요 11개 기관(8.2%)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올라갔고, 13개 기관은 하락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스알, 한

국산업인력공단 등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다.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에스알(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한국중부발전(공기업 에너지 부문) ▲주택도시공사(공기업 산업진흥·서비스 부문) ▲신용보증기금(준정부기관 자금관리형 부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부문) ▲한국콘텐츠진흥원(기타공공기관 부문)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년도에 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환경 개선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은 107개에서 112개로 증가했고 2025년 출연금액 역시 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늘어났다.

또한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환경도 개선됐다. 공공기관의 거래기업(1차 협력사)이 하위 거래기

업에 상생결제를 시행한 기관 수는 89개에서 100개로 증가했고, 2025년 결제금액 역시 3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도 115개에서 122개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공공부문에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양호' 이하 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냉방비 부담 커지자 '창호 성능' 관심 집중

KCC 고단열·프리미엄 공략 강화 이사·리모델링 시즌 에너지 효율 주목 단열·기밀성이 실내 온도 유지 좌우

'내가 사는 집의 냉방 효율은 아떨까.' 봄철 이사, 리모델링 시즌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주거 공간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더욱 에너지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건은 창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호는 겨울철 난방효율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다.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고, 반대로 실내의 냉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창호의 단열성과 기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창호는 시간이 지나며 틈새가 생기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이사나 집수리 시기에



KCC 창호Window 5 제품 적용 이미지 컷.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사례도 많다.

창호는 크게 유리와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성능은 유리의 사양뿐 아니라 프레임 설계와 창문 틈새를 얼마나 촘촘하게 막아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리와 프레임이 함께 외기 유입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프레임 내부를 여러 칸으로 나눈 '다중챔버' 구조는 공기층을 형성해 외부

열기가 실내로 전달되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창문이 닫힐 때 프레임과 창짝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하는 밀착 설계가 적용되면, 틈새를 통한 공기 유입을 줄여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국내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를 통해 단열성과 기밀성 등이 공식적으로 평가된다. 창의 구조와 유리 두께, 프레임 성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김승호 기자

만큼, 성능이 우수한 창호는 냉난방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호 교체를 주거 환경 개선의 한 축으로 보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KCC는 공식 '유통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창호 제품 정보와 상담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주거 공간 조건에 맞춘 고단열 솔루션으로 'Window 5 α'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확장 여부에 따라 단창 또는 이중창 구조(VB F145·VBF2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가운데 KCC는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클렌체(Klenze)'를 통해 하이엔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클렌체는 고급 주거공간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브랜드로 평가된다.



대한상의 회관 전경.

/대한상의

### 대한상공회의소

#### 베트남 공대 인재 유치 지역기업 인력난 완화

하노이국립대 등 4개 대학과 MOU

대한상공회의소가 베트남 주요 공과 대학과 협력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에 나선다. 현지 우수 인재를 국내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선발·교육한 뒤 실무역량 검증과 정착 지원까지 연계해 지역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하노이국립대, 하노이과학기술대, 하노이산업대, 우편통신기술대학교 등 베트남 주요 4개 대학과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상의가 산업통상부와 추진하는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의 일환이다. 학사급 해외 기술인재를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연결해 산업현장의 구조적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대학들은 베트남 내 공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곳이다. 하노이국립대는 베트남 대학 순위 1위, 하노이과학기술대는 3위, 하노이산업대는 공학 분야 2위에 올라와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코웨이, 스쿼어핏 공기청정기 2종 선보

기존제품 대비 부피 최대 48% 줄여

코웨이가 슬림 사이즈에 청정 성능을 높인 '스쿼어핏 공기청정기' 시리즈에 신규 모델 2종(50㎡, 66㎡)을 추가 출시하며 중형 평형대 라인업을 강화했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스쿼어핏 공기청정기 시리즈는 작은 크기에도 우수한 청정 효율과 미니멀 디자인을 갖춘 엔트리급 라인업이다. 코웨이는 기존 스쿼어핏 공기청정기 38㎡와 82㎡ 모델에 이어 중형대 청정 면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50㎡ 및 66㎡ 모델을 선보이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김승호 기자

신제품 50·66㎡는 슬림핏 사각형 패밀리를 반영한 미니멀 디자인과 색상으로 집안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기존 동일 평형대 제품 대비 부피는 각각 약 48%, 35% 줄었고, 바닥 면적은 약 30% 줄었다.

색상은 취향과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샌드 베이지 ▲퓨어 화이트 ▲세이지 그린 ▲페블 그레이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스쿼어핏 공기청정기 2종은 코웨이만의 차별화된 필터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를 강력하게 케어한다.

## 여경협, 미래 여성 창업가 키운다

내달 17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창업아이디어 전문가 멘토링부터 지식재산권(IP) 출원까지 직접 경험할 미래 여성 창업가를 찾는다. 여경협은 내달 17일까지 전국 고교 및 대학(원) 재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여학생에게 맞춤형 실전 창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구체적인 진로 선택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IP) 코칭 등 단계별 집중 과정 프로그램을 거치며 실제 창업 단계를 경험하고 미래 여성경제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또한 우수 창업아이디어 30건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창업장려금과 상패, 지식재산권(IP) 출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수료생 2942명을 배출하며 연평균 만족도 96%라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AIDC 키우는 통신3사... 냉각 인프라 구축에 수익성 달렸다

SKT, 전력 설비 용량 1GW 확대 목표  
차세대 냉각기술 직접 설계 박차

KT, 4년 내 500MW까지 전력 확보  
수냉식 직접 칩 냉각 방식 집중

LG U+ '과주AIDC', 수도권 최대규모  
LG전자와 냉각수분배장치 개발

국내 이동통신3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AIDC) 대규모 투자 경쟁에 뛰어들어 가운데 향후 수익성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효율적인 전력 운용과 발열 부담을 낮추는 냉각 인프라 구축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 용량을 2028년까지 약 600MW로 확장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추정치(460MW) 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다. SK텔레콤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한 울산 AIDC는 장기적으로 40MW에서 1GW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T는 매년 최대 1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4년 내



KT클라우드 가산AIDC 센터 전경.

/KT

500MW까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내년 오픈 예정인 과주 AIDC는 200MW로 수도권 최대 규모다.

문제는 AIDC 구축에 투입되는 초기 투자 비용이다. AIDC에 탑재하는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의 전력 수요는 일반 데이터 센터 서버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CPU 중심의 일반 서버 랙이

7~10KW 수준인 반면 AI 서버 랙은 30~100KW 치솟아 전력 밀도가 높다. 때문에 수전 용량을 확대하고, 변압기 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특히 효율적인 전력 운용을 위한 냉각 인프라 구축이 수익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GPU는 고성능 연산을 수행하며 열을 방출한다.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전력비를 절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데이터센터 내 연산 장비에서 열을 제거하는 냉각 기술은 크게 공랭식, 수랭식으로 나뉜다. 공랭식은 찬 공기를 순환시켜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랙당 10~15KW 수준의 저밀도 환경에 적합해 AI DC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수랭식은 물이나 냉각수를 활용해 열을 식히는 방식인데, 대표 기술인 D2C가 공랭식 대비 냉각 전력 소비를 20~30%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로 분류되는 액침냉각 방식이 100KW 이상 초고밀도 환경에 유리하지만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은 편이다.

KT는 지난 11월 문을 연 가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액체 냉각 인프라 기술을 선보였다. 고객 수요가 몰리는 수냉식 직접 칩 냉각(D2C) 방식에 집중해 이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LG전자와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공동 개발해 액체를

활용한 냉각 방식 개발에 집중한다. SK텔레콤은 차세대 냉각 기술을 직접 설계하기 위해 지난해 SK엔무브, 대만 AI 인프라 전문 기업 기가 컴퓨팅과 3자 협약을 맺고 기술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

전력 조달 방식도 변한다. 정부는 AI DC 특별법을 추진하며 전력 연결과 인허가 절차 완화를 검토 중이지만,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력 특례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과 수요 대응이 빠른 LNG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한다"며 "향후 통신 3사의 경쟁력도 전력 조달 능력과 냉각 기술 수준에서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검색 넘어 '직접 업무'... 에이전틱 AI 확산

### 오늘 AI

구글 '제미나이 인 크롬'... 구조 재편  
AWS, 올해 '에이전틱 AI 원년' 규정  
정부, 1.2조 규모 AI 투자 재원 조성

인공지능(AI)이 검색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정보를 찾는 단계를 넘어 문서를 쓰고 비교하고 실행까지 하는 '작업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다.

◆ 검색의 종말...브라우저가 업무 수행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최근 선보인 '제미나이 인 크롬'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용자는 여러 탭을 오갈 필요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요약, 비교, 이메일 작성, 이미지 변환까지 수행할 수 있다.

기존 인터넷 사용 방식은 검색→클릭→탭 이동이라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AI가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에서 '처리하는' 역할로 넘어간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플랫폼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검색엔진과 앱 중심 생태계가 약화되고, AI 인터페이스를 장악한 기업이 이용자 접점을 가져가는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 "시키면 한다"...에이전틱 AI가 판바꾼다

AI 진화의 핵심은 '실행'이다. 사람이 지시하면 결과를 내놓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가 확산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는 올해를 '에이전틱 AI 원년'으로 규정했다. 기업 경쟁력 역시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AI가 실제 업무를 얼마나 자동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난다. AI 도입 이후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고,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다. AI는 더 이상 보조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동료'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결국 AI 경쟁은 모델 성능을 넘어 인프라 경쟁으로 확장되는 구조다.

◆ 돈이 몰린다...AI 경쟁, '자본 게임'으로 전환

기술 경쟁과 함께 자본 경쟁도 본격화됐다.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AI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향후 1조98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IR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GPU 등 핵심 인프라 지원에도 나섰다.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AI 산업은 이미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을 넘어섰다. 인프라, 데이터, 자본, 플랫폼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종합 경쟁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AI는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브라우저, 클라우드, 투자까지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승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 U+, '심플 랩' 통해 고객 통신경험 혁신

고객 참여형 영상 콘텐츠 공개

LG유플러스는 고객 참여형 영상 콘텐츠 '유플러스에 도착한 당신의 이야기', '딸의 낯선 목소리' 등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상은 고객 참여 서비스 '심플 랩'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담아 고객의 통신 경험을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심플 랩은 고객이 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LG유플러스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서비스와 기능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 콘텐츠에는 업무 중 통화와 메모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해 달라는 요청,

부모가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자녀의 바람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아이의 스마트폰 첫 사용을 부모가 쉽게 관리하고 싶다는 고민, 복잡한 모바일 요금과 이용 조건을 한눈에 이해하고 싶다는 요구 등 고객의 일상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가 소개됐다.

한편, 고객 참여 서비스 '심플 랩'은 지난해 11월 통합 애플리케이션 '유플러스 원'에 추가됐다. 고객은 매달 제시되는 이달의 주제는 물론 통신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 등을 자유 주제로 제안할 수 있다. 현재까지 1만 여건의 고객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디어를 우선 검토해 실제 서비스 개선 여부와 진행 상황을 고객과 공유해 나가고 있다.

/조민선 기자

## 구글, 엔스로픽에 최대 60조 투자 추진

AI 경쟁 속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5년간 5기가와트 연산능력 제공도

구글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최대 400억달러(약 6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우선 1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향후 성과 목표 달성 시 추가로 3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투자에서 엔스로픽의 기업가치는 350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됐다.

구글은 투자와 함께 엔스로픽의 인프라 확장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총 5기가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

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맞는 수준으로 AI 모델 경쟁력 확보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엔스로픽은 AI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앞서 아마존으로부터 50억달러를 추가 유치했으며 향후 200억달러 투자 옵션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300억달러 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양사는 이미 긴밀한 사업 관계를 유지해왔다. 엔스로픽은 구글의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주요 고객이며, 이번 계약은 브로드컴과의 협력까지 포함한 생태계 확장 성격을 갖는다. 구글은 검색 광고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인프라를 핵심 성장 축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최빛나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11 '코파일럿' 삭제 정식 지원

개인정보 등 외부유출 우려 제기  
비활성화 중심 정책서 옵션 추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11' 기반 PC에 기본 탑재된 AI 앱 '코파일럿'의 삭제 기능을 정식 지원한다. 기존에는 비활성화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조치로 기업과 기관의 보안 통제 범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기업 IT 관리자 대상 공지를 통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365. /마이크로소프트

해 코파일럿 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이달 21일 공개된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한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코파일럿은 2024년 이후 출시된 윈도 11 PC에 기본 제공되는 생성형 AI 서비스다. 클라우드 기반 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해 문서 작성, 요약, 업무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고객 데이터, 내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비활성화'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삭제' 옵션을 추가했다.

/최빛나 기자

#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우주·반도체 ETF '카피캣 경쟁'

(모방)

운용사들, 유사 ETF 상품 잇단 출시  
美 우주항공·반도체, 자금 상위권  
스페이스X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



ChatGPT로 생성한 ETF 관련 이미지.

“모든 회사가 상장지수펀드(ETF)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밤샘 작업하며 상품을 개발해요. 그런데 치열하게 고민해서 상품을 내놓아도 잠깐만 좋지 경쟁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모방 출시하더라고요. 규모도 확 키워서 상장시키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한 자산운용사 임원)

ETF 시장에서 다른 운용사가 애써서 내놓은 것을 따라내는 이른바 '카피캣(모방) 상품'이 늘고 있다. 미국 우주항공과 반도체 관련 ETF가 그 중심에 있다.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기대감과 반도체 투자 수요가 맞물려 있다.

26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우주항공 관련 상품과 반도체 ETF가 자금유입 2위부터 5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IGER 미국우주테크에 2303억원이 몰리며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유입됐

고, 다음으로 HANARO FnK-반도체(2160억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1907억원),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1715억원) 등이다.

우주 테마는 ETF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금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스페이스X의 IPO 관련 박이벤트가 존재하는 만큼, 호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

EC)에 오는 6월 상장을 목표로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IPO 절차에 돌입했다. 목표 기업가치는 최대 2조달러(약 2600조원)로 상장 성공할 시 글로벌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의 상장은 역대급 규모의 자금조달과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 우주산업의 기준점이 생성되며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걸음을 맞추려는 자산운용사들의 상품 속도전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우주항공'을 먼저 출시했고, 지난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각각 'TIGER 미국우주테크',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상장했다. 최근에는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우주항공TOP10ETF'를 출시하며 경쟁에 참전했으며, KB자산운용도 관련 상품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품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운용사별 차별점은 약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 운용사에서 좀 괜찮은 상품이 나오면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 쏟아진다”며 “우주항공도 장기적으로 봐야할 테마지만 당장은 스페이스X라는 단기 호재를 보고 사실상 같은 상품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기 테마인 반도체 ETF 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최대 25%씩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고채 등 국내 우량 채권으로 구성한다. 채

권 비중이 50%를 넘어설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10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는 강점이 생긴다.

가장 먼저 출시했던 곳은 KB자산운용이다.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은 지난 2월 26일 상장 이후 36영업일 만에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채권혼합형 ETF 사상 최단 기록이다. 이후 삼성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이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주목됐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ETF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이르면 내달 22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

## 반도체 변동성에 서학개미, 상·하 동시 베팅

### 해외주식 Click

순매수 1위, 반도체 3배 인버스 ETF  
단기 고점 조정 대비 헤지 수요 확대

미국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서학개미) 자금이 지난달에 비해 커진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 베팅과 개별 종목 이벤트를 겨냥한 매수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까지 고려한 '양방향 투자'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는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3배 인버스 ETF인 SOXS(DIREXION SHARESETF TRUST DAILY SEMICONDUCTOR BEAR 3X SHS)로 집계됐다. 순매수 규모는 약 8086만달러에 달한다. 반도체 업황 기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단기 고점 부담에 대비한 헤지 수요가 동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 /ChatGPT로 만든 이미지

에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 ETF와 S&P500 ETF(SPY) 등 지수형 상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메모리 관련 테마 ETF인 라운드힐 메모리 ETF, 반도체 기업 인텔과 마벨, 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기업 오라클 등도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되며 AI 및 반도체 중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됐다.

특히 상승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가 동시에 상위권에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나스닥 상승 흐름을 추종하는 상품과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함께 매수되며, 투자자들이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목별로는 인텔의 반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24% 급등하며 8분기 만에 매출 증가로 전환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법적 보호 없는 매매예약금 피해 주의보

### 금감원 Q&A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포함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과 함께 '매매예약금'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예약금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별도로 납부하는 금전으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 홍보에서는 이를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매예약금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한 금전으로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금은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이면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홍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합쳐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 문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정윤 기자

## 하나운용, 'K반도체 ETF' 550억 흥행

상장 6일만... 총 236억 누적 순매수

하나자산운용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1Q K반도체TOP2+' 및 '1Q K반도체TOP2채권혼합50'의 총 순자산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 해당 ETF 2종의 총 순자산은 5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4월 14일 상장 이후 6영업일 만이다. 상장 이후 개인고객들은 반도체 ETF 2종에 대하여 총

236억원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

'1Q K반도체TOP2+'는 'NICE K반도체 TOP2 MAX+'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약 27.5%씩 편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기업의 합산 비중은 약 55%이며, 나머지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 8개가 포함된다. 일반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IRP) 모두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한도(70%) 내에서 편입이 가능하다. 총보수

는 연 0.20%다.

'1Q K반도체TOP2채권혼합50'은 'KEDI K반도체 TOP2 채권혼합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며, 삼성전자 약 25%, SK하이닉스 약 25%, 단기국고채·통안채 약 50%로 구성된 2세대 채권혼합형 ETF다. 퇴직연금계좌(DC/IRP)에 100% 편입이 가능하며, 안전자산 편입 한도(30%) 내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허정윤 기자

## 코스콤, 임직원 배식 봉사로 온기 나뉜

1본부 1봉사 캠페인... 후원금 전달

코스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코스콤이 올해 추진 중인 '1본부 1봉사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스콤은 매달 본부별로 릴레이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공헌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코스콤 경영지원본부 임직원 16명과 상생협력팀 3명 등 총



코스콤 임직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취약계층 35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지원과 설거지 등 급식소 운영을 도왔다. /신하은 기자

# aT, 美 휴스턴에 거점... 라틴계 마트와 'K-푸드' 영토 확장

‘슈퍼리어그로서스’와 협업 논의  
홍문표 사장 “한인 커뮤니티 넘어  
히스패닉·주류시장으로 본격 확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북미 시장에서의 K-푸드 영토 확장에 공들이고 있다. 최근 신규 aT 지사를 텍사스주에 설립하고, 공사의 홍문표 사장은 직접 캘리포니아 소재의 전미 1위 라틴계 슈퍼마켓 체인 ‘슈퍼리어그로서스’의 미미 송 회장과 면담하고, 한국 농식품의 입점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히스패닉 슈퍼마켓 체인 ‘슈퍼리어그로서스’의 미미 송 회장과 면담하고, 한국 농식품의 입점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슈퍼리어그로서스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에 7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만 9억 달러(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등 미 서부 및 남가주 대표 유통기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라틴계로는 미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각 슈퍼리어그로서스 매장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과자·음료·소스류·김치·냉동식품·아이스크림 등 한국 농식품 입점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달 22일(현지시간)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오른쪽 3번째)이 휴스턴 지사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갖고 있다. /aT

미국 내 라틴계 수는 총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을 겨냥한 유통망에 K-푸드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한국 음식이 중남미계 소비자 사이에서도 한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aT는 설명했다.

홍 사장은 현지에서 “K-푸드가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히스패닉·주류 시장으로 본격 확산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화”라며 “북미 월드컵을 계기로, aT와 슈퍼리어가 함께하는 공동 홍보행사도 성

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또 재외동포 경제인단체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경기침체 우려 속 현장의 체감 상황을 청취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한인경제협회 LA지회 김창주 회장과 LA 한인상공회의소 김홍철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는 최석호(스티븐 최) 상원의원과 만나 K-푸드의 현

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김치의 날, 소주의 날, 태권도의 날’ 등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결의안 발의를 주도해 온 인물이다.

홍 사장은 “캘리포니아 주는 미주지역 K-푸드 확산의 핵심 거점”이라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aT는 휴스턴에서 신규 지사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사 관계자는 “텍사스 휴스턴 지사 설립은 미국 남부의 가파른 성장세와 전략적 필요성을 고려한 핵심 기반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텍사스는 미 50개 주 가운데 GDP(국내총생산) 2위의 핵심 경제권이다. 2025년 인구 순유입 부문에서 39만 명으로 전미 1위를 기록했고, 2024년 GDP 성장률도 3.9%로 전미 평균 2.8%를 크게 웃돌았다. 해외화물 수송에서 미국 내 물동량 1위인 휴스턴항을 보유한 물류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비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크다. K-푸드 소비 유력층인 히스패닉 비중이 약 40%로 가장 크고, 타국에서 유입된 노동력이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그만큼 다

양한 식문화 수요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휴스턴 지사를 미 남부 9개 주, 멕시코, 중미 8개국을 아우르는 수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 동부의 뉴욕, 서부의 LA, 브라질 상파울루에 더해 총 4곳의 아메리카 대륙 거점을 갖추게 됐다.

이 같은 행보에 현지 정부도 화답했다. 개소식 행사에서 휴스턴 시와 해리스카운티는 aT 휴스턴지사 개소를 통한 한미교류 확대와 무역협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시는 휴스턴 시장 이름으로 공식 환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휴스턴 시 국제협력국장 기리리, 해리스 카운티 최고위원 레슬리 브리온스, 주 휴스턴 이경은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홍 사장은 자리에서 “이번 지사 신규 개소로, K-푸드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소비시장을 2, 3선 도시까지 넓혀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코트라, 수출기업 AI·디지털 마케팅 돕는다

알리바바닷컴과 바이코리아 연계  
온라인플랫폼 활용 수출지원 시행  
수출초보기업, 양사 플랫폼 동시 입점

국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B2B 플랫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 플랫폼에 동시 입점해 연중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트라는 지난 3월 20일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디지털·AI 기반 온라인플랫폼 활용과 공동 계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 200여 개국, 5000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활동하는 알리바바닷컴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국내 기업 수출 전선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추

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코트라의 B2B 수출 플랫폼인 ‘바이코리아(buyKOREA)’와 알리바바닷컴을 연계한 ‘2026 온라인플랫폼 활용 수출 지원 사업’을 공동 시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수출초보기업은 ▲양대 플랫폼 동시 입점 지원 ▲알리바바닷컴 내 한국상품 전용 특별관 운영 ▲SNS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잠재 바이어 발굴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의 밀착 컨설팅(바이어 응대·계약)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 20개 ‘AI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홍보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바이코리아에 탑재된 AI 기능을 활용해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바이어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서비스

도 이용 가능하다.

코트라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디지털 기반의 수출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오프라인 마케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영주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은 “국내 대표 B2B 수출플랫폼인 바이코리아와 글로벌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 동시 마케팅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출초보기업들이 두 플랫폼을 활용해 가성비 있게 AI·디지털 기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부산항만공, ‘크루즈·탈탄소’ 국제 교류 강화

‘국제항만협회 기술위원회’ 참석

부산항만공사(BPA)가 세계 주요 항만들과 협력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연료 도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크루즈항만 운영 인증체계 구축 관련해, 정보공유 등의 교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22~24일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항만협회(IAPH) 기술위원회에 참석해, 항만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및 회복탄력성 강화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위에서는 ▲항만 간 데이터 교환 및 디지털 협력 강화 ▲저탄소·무탄소 연료 도입 및 에너지 전환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공유 ▲지속가능한 크루즈항만 운영 인증체계 마련 등 전 세계 항만 운영에 직결되는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공사는 데이터 협력 위원회에서 부산

항의 독자적인 디지털 물류 플랫폼인 ‘체인포털’에 기반한 해외 항만과의 선박 입출항 데이터 연계 현황을 공유했다. 글로벌 항만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항만 간 데이터 협력 가속화 과정에 부산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항만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항만협회는 항만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195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족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관리 관계자 국제기구다. 현재 90개국 350여 개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회원 항만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항만산업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반대... ‘신·경 분리’ 오류”

농식품부,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 열어  
지배구조·감사 등 구조변경에 집중  
실패한 개혁 반복... 졸속입법 우려도

농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논리로 과거 ‘신·경 분리’를 내세웠다. 신용과 경제사업 부문의 둘로 쪼개기가 효율성은 떨어뜨리고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지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주관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나왔다. 농식품부는 22일 대구(영남권),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조합장과 농업인 400여 명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협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가 24일 충북 청주 농협충북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은 농협법 개정안의 방향 및 추진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선 이른바 ‘신경분리의 오류’가 언급됐다. 이들은 해당 사안이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

도 불구하고,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원 인제농협의 정성빈 조합장은 “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조합원 실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중심의 (농협) 개편안이 오히려 농협을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와 감사, 선거제도 개편 등 구조변경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실패한 개혁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재편을 위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졸속 입법’의 우려도 제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대상자 선정

올해까지 2490억, 총 11척 지원

해양수산부가 2026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로 1개 연안해운선사(청산농협동조합)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대상 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박의 가격에 따라 펀드 자금을 선가의 최소 30%에서 60%까지 지원한다. 선사는 해당 선박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2026년 제1차 공모 결과, 청산농협동조합이 최종 선정돼 선가의 6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당초 펀드 지원 대상은 연안여객선이었으나,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4년도부터 지원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까지 조성된 2490억원의 펀드 자금으로 총 11척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 광주시, AI·모빌리티 창업거점으로... 나주·목포 추가 '주목'

광주 등 '테크 창업도시' 우선 지정 지역 주력산업 연계 6곳 선정 예정 창업인재 양성하고 기술실증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 나주와 목포는 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거점으로 특화산업 연계 도시로 역할이 기대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 '창업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인재와 공공데이터,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부터 성장,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국내 창업 생태계는 서울 등 수도권에 투자와 인재가 집중돼 지역 경



정부가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나주·천안·포항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한 권역별 창업 생태계 확산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쟁력이 크게 뒤쳐진 상황이다. 실제 글로벌 창업도시 순위에서 비수도권 주요 도시는 300위권 이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테크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이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는 AI와 에너지, 모빌리티 융합

기반 실증 도시로 육성된다. 국가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창업인재양성과 기술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목포가 각각 에너지와 해양·산업 기반의 '특화산업 중심형 도시'로 분류돼 향후 창업도시 추가 지정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나주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과 한국에너지공단(KENTECH·켄텍)을 기반으로 데이터·실증형 창업 환경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목포 역시 항만과 해양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물류·에너지 연계 창업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정부는 창업도시 내 기업 정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2026년 4500억원 규모 지역 성장 펀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공데이터 개방, 공동기숙사·창업공간 확충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창업과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도시는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와 자본, 기술이 결합된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며 "지역 거점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창업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중·고교까지 시민체감 교육지원

울산시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울산형 시민체감 교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먼저 대중교통비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에 한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의 50%를 지원한다. 등·하교는 물론 학원 이동 비용까지 절감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험활동 지원 사업인 '울산아이 문화패스'도 확대된다. 공연·전시 관람, 체육활동, 도서 구입,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전체 약 13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포항시-울진군 '신라비'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항시-울진군은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신라 동해안 3비(포항 냉수리·중성리 신라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둘러보는 시민 현장 답사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경북 동해안 신라3비는 특정 사건에 대한 국가 판결을 기록한 공문서 성격의 금석문이다. /포항(경북)=김태우 기자

### 해남군 고구마 '호풍미' 재배면적 확대

해남군에서는 병해에 강한 국내육성 고구마 신종품 '호풍미'로 재배면적 확대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덩이줄기썩음병 등 병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호풍미'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미, 외관 상품성을 갖춰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특히 병해충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우수해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에서 앞으로도 조직배양묘 보급을 확대해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 부산·진해경자청 진해신항CC '대중형' 전환

진해신항CC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이번 승인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본격적인 운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진해신항CC는 경남·부산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골프장으로, 대중형 전환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양군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 5만명 찾는 영양산나물축제 내달 개막

내달 7일부터 4일간 열려 미식·체험 콘텐츠 확대

영양군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영양문화원 및 읍내 시가지 일원에서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매년 안정적인 방문객 규모를 유지하며 영양군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축제는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식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함께 개선

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영양산나물축제는 최근 수년간 5만 명대 방문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2022년 약 5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2024년 5만7000여 명이 방문, 2025년에는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형태로 운영되며 약 3만5000명이 참여했다.

올해 축제는 산나물을 활용한 미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경남, 액화천연가스 설비 특화단지 신청

천연가스 액화공장, 전략 품목 선정

경남도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해 산업통상부 주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 핵심은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핵심 기술의 국산화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바다 위 LNG 공장'으로 불리는 F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사실상 전세계 FLNG 수주를 독점하고 있지만, 핵심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을 해외 기업이 독점해 선박 한 척을 지을 때마다 건조 비용의 약 2~3%를 기술료로 해외에 지불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라이선스 보유 해외 기업이 액화공장 핵심 기자재 공급업체까지 특정 해외 업체로 지정하는 '벤더 고정' 구조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작 국내 조선사가 만드는 FLNG에 납품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

경남도는 이 구조적 사슬을 끊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공정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2031년까지 총 745억원을 투입한다.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거제시, 경남테크노파크,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해 ▲핵심 기술 및 기자재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전담 지원 조직 운영 등을 추진하며 거제를 글로벌 조선해양플랜트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전북도, 51억 투입해 섬 발전사업 추진

기반시설 확충·생활 인프라 구축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1억원 규모의 섬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생활 기반과 관광, 소득 창출을 연계한 구조로 추진되며 주민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섬 특성화, 생활 인프라 구축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기반시설 분야에는 약 16억원이 투입된다.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조

성(4억원)을 비롯해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4억원), 선유3구 물양장 조성(1억3000만원), 부안 깊은금~치도 연결도로 확·포장,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관광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고 섬 지역 인프라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성화 사업에는 약 17억원이 투입된다. 여정도, 야미도, 신시도 등 6개 섬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소득사업 발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민 주도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전북=이대호 기자

##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부산 유치

해양 디지털 서비스 글로벌 거점 도약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1921년 모나코에서 창설된 이후 IHO 사무국 외 조직이 다른 나라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IHO 총회에서 인프라센터 부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프라센터는 항해용 해도 관리, 해양정보

표준 개발 및 운영, 새 디지털 해도 국제표준(S-100)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운용 테스트 등을 담당하는 IHO의 기술전담 조직이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한국 유치 결정, 지난해 IHO 이사회 설립 결정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2년에 걸친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먹고 응원하고 인증샷 찍어요”... 유통업계, 야구 팬덤 주목

## 프로야구 1300만 관중 시대

연간 소비 지출효과 1.1조 추산  
푸드·패션업계, 협업 제품 선배  
2030 여성팬덤, 질적성장 핵심  
요가·반려견·러닝 아카데미 등  
야구장서 이색적인 경험 제공

# 직장인 이 모(29·여)씨는 퇴근 후 집이 아닌 잠실야구장을 찾는다. 익숙하게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걸친 이 씨의 손에는 야구장 인근 맛집에서 산 퓨전 음식이 들려 있다. 경기 시작 전, 그는 구장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TV로 보시던 스포츠였지만, 저에게 야구는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핵심 콘텐츠예요. 예쁜 굿즈를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응원하는 과정을 SNS에 기록하는 게 일상의 큰 즐거움이지요.”

이 씨와 같은 ‘뉴비(Newbie)’ 팬들의 유입으로 프로야구 관련 문화를 넘어선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응원하고 있다. /뉴시스

거대한 소비 시장이 열리고 있다. 1300만 관중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KBO 리그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유통업계의 지형도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과거 야구장이 승패를 확인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야구장은 응원 문화, 먹거리(치맥), 굿즈 구매 등을 기록하고

SNS에 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야구의 연간 소비 지출 효과는 1조 1121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KBO 리그 정규 시즌 관중은 1231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개막 후 역대 최

단기간인 2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프로야구 전체 관중이 1300만명을 돌파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유통업계는 앞다투어 KBO와 손을 잡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최근 10개 구단 심볼을 적용한 빼빼로 등 협업 제품 4000세트를 사전 예약 3일 만에 완판시켰다.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 KBO와 협업한 텀블러와 키링이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패션업계도 팬덤을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룩스는 10개 구단별 ‘지비츠 참’ 컬렉션을 출시해 커스터마이징 수요를 공략했다. CJ온스타일은 홈 인테리어와 패션 잡화를 결합한 굿즈를 출시해 사흘 만에 2만 5000개를 판매했으며, 목표 대비 333%의 매출을 달성했다.

야구 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2030 여성 팬덤이다. 번개장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야구 카테고리 내 2030 여성 거래액은 전년 대비 95% 급증하며 남성(37%)을 압도했다.

여성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아닌더라도 구장의 분위기나 특색 있는 굿즈를 즐기기에 야구장을 방문하는 ‘전국 구장 투어’에도 적극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남성 팬이 경기 자체에 집중한다면, 여성 팬은 야구장에서 보내는 시간 전체의 가치와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에 지갑을 연다”고 분석했다.

팬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구단들의 노력도 치열하다.

SSG랜더스는 경기가 없는 날에도 요가 클래스나 반려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LG트윈스는 이른 아침 잠실구장 그라운드를 달리는 ‘러닝 아카데미’를 열어 팬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야구장을 경기 관람 장소를 넘어 일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 팬덤을 넘어 유통, 관광, 콘텐츠를 아우르는 ‘야구 경제권(Baseball economy)’의 확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한중일 연휴... 롯데마트, 관광객 수요 공략

日 코네스트와 전용 할인 쿠폰 제공  
라인·위챗페이 이용 프로모션 운영  
식품·뷰티·헬스 등서 다채로운 행사

롯데마트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한중일 연휴 기간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간은 국내 황금연휴와 일본 골든위크, 중국·대만 노동절 연휴가 겹치는 시기로 외국인 쇼핑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로 꼽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할인, 결제 혜택, 사은품 증정 등 외국인 맞춤형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행 준비 단계부터 매장 방문까지 이어지는 고객 동선을 고려한 제휴도 진행한다. 일본 온라인 여행 플랫폼 코네스트와 협업해 롯데마트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점 투숙객에게는 매장 할인 바우처를 지급한다.

매장에서는 간편결제 기반 프로모션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 매장 전경. /롯데마트

을 운영한다. 라인페이 이용 고객에게는 5월 15일까지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위챗페이 이용 시 5월 10일까지 최대 88위안 즉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외국인 방문이 많은 서울역점과 광복점에서는 사은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구매 시 러기지백을 선착순 증정하며, 서울역점에서는 10만 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여행용 장바구니를 추가로 제공한다.

식품 부문에서는 K-푸드 중심의 프

로모션을 강화한다. ‘청우 존독초코칩 딸기’는 재생산해 할인 판매하고, ‘청우 존독초코칩’, ‘농심 빵부장 시리즈’ 등 스낵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라면 코너에서는 ‘비비고 오마이갓 잡채’를 선 출시한다.

뷰티·헬스 카테고리에서는 마스크팩 45종 1+1 행사와 함께 일부 브랜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서울역점에서는 이너뷰티 상품을 신규 도입해 관련 수요에 대응한다. /김서현 기자 seoh@

# 정관장, ‘홍삼’ 과학적 효능 세계에 알린다

美 ICSB서 학술세미나 열어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이 국제 학술무대에서 과학적 효능을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 기반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K-건강식품의 수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관장(KGC)은 최근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국제천연물과학회(ICSB)에서 ‘홍삼의 최신 효능 연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글로벌 연구진 약 4백명이 참석해 홍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홍삼은 뇌 신경 보호 및 항노화, 혈당 조절,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신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며 기능성



KGC가 국제천연물과학회(ICSB)에서 인삼 학술세미나 개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GC

소재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혈당 관련 임상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대규모 인체 적용 시험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질 개선 효과도 입증됐다.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홍삼 제품은 현재 미국 아마존, 코스트코, 스프라우츠 등 주요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현대그린푸드, 서울에 ‘텍사스 로드하우스’ 첫선

美 1위 스테이크 전문점 잠실에 오픈

현대그린푸드가 서울에 미국 1위 스테이크 전문점 ‘텍사스 로드하우스’ 매장을 처음 선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28일 서울 동남권 핵심 상권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플래그십 매장 형태의 텍사스 로드하우스(이하 TXRH) 잠실본점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TXRH는 미국 1위(매출 기준)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1993년 미국 인디애나주

에 첫 매장을 연 뒤 현재 미국·멕시코·대만 등 11개국에 8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현대그린푸드가 2020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1호점을 시작으로 송도점·김포점, 현대백화점 중동점·관교점·더현대 대구까지 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TXRH는 초이스 등급의 신선도 높은 스테이크를 시중 스테이크 전문점 대비 15%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고칼로리의 가성비 스테이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TXRH 잠실본점의

매장 면적은 505㎡(약 153평)으로 200석 규모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TXRH 잠실본점 매장 오픈을 기념해 신메뉴 3종도 선보인다. 나초 위에 훈연 돼지고기를 겹대로 찢어 올린 ‘폴드포크 나초’, 크림소스 치킨에 꿀과 라임을 곁들인 ‘허니라이프 치킨’과 미국식 스테이크 소스인 ‘치미추리 스머더’ 등이다. 오픈 기념 스크래치 쿠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세븐일레븐, 스타셰프 제품 200만개 판매

김희은·후덕죽 셰프 협업 상품 예정

세븐일레븐은 스타 셰프 협업 상품 누적 판매량이 올해 200만 개를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해당 라인을 간편식의 주요 카테고리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소울’을 운영하는 김희은 셰프와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김희은 셰프와 협업한 ‘김희은산채더덕비빔밥’은 더덕 볶음을 중심으로 들깨 무나물, 당근볶음, 계란 지단 등 7가지 고명을 구성한 제품이다. 고추장과 참기

름을 함께 제공한다. 용기는 구절판 형태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김희은들깨달걀비빔밥’, ‘김희은들깨마요불고기김밥’, ‘김희은들깨묵ח참유부말이’ 등도 출시된다. 들깨, 더덕 등 기존 편의점 간편식에서 비교적 보기 어려웠던 한식 재료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식 셰프 후덕죽과의 협업 상품도 이어진다. ‘후덕죽오징어불고기&백짬뽕반상도시락’, ‘후덕죽사천고기짜장마늘볶음밥삼각김밥’, ‘고추잡채불고기김밥’ 등 3종이 다음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바이젠셀 '1호 승인' 나왔다... 국내 재생의료 상업화 속도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후 첫 승인  
큐로셀 '안발셀' 품목허가 진행중  
첨단 재생의료, 적용 범위 확대



큐로셀 연구진이 국산 'CAR-T'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큐로셀

국내 첨단 재생의료 시장이 규제 완화를 넘어 실제 환자 투약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신약 개발 전문기업 바이젠셀이 '첨단재생의료법' (이하 첨생법) 개정 시행 최초의 치료 승인을 획득하며 임상 단계 신약의 현장 투입을 본격화했다.

2024년 2월 개정 이후 2025년 2월 시행을 거친 속도전이다. 개정된 첨생법은 과거 임상 연구에만 머물렀던 첨단 재생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 정식 허가 전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젠셀의 자가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승인을 받았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전영우 교수팀은 항우

2년간 재발 위험이 높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 림프절외 NK/T 세포림프종 완전 관해 환자에서 'VT-EBV-N' 치료를 수행하게 된다.

VT-EBV-N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 세포를 활용하는 항원 특이적 세포치료제다.

VT-EBV-N은 임상 2상에서 재발 위험 감소, 생존 기간 개선 등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 바이젠셀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VT-EBV-N 상업화에 속

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바이젠셀 측은 "치료 기회가 절실한 환우들에게 새로운 효과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 옵션을 공급하고,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VT-EBV-N 조건부 품목허가, 기술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젠셀의 1호 승인은 후발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성장 기반이 될 전망이다.

큐로셀 역시 후보물질 '안발셀(제품명: 림카토주)'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

어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탄생에 예고한다. 규제와 상업화가 맞물리며 K재의료 생태계가 팽창하는 양상이다.

림카토 적응증은 재발성 및 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며 말기 혈액암 환자에게 쓰이게 된다. 보건복지부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도 선정돼, 현재 식약처 허가, 건강보험 및 약가 등에 대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림카토는 임상 2상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높은 완전관해율, 낮은 부작용 발현 등을 기록했다. 해당 임상 유효성 분석군 73명에서 림카토 투여 후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전관해에 도달한 비율은 67.1%다. 기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CAR-T 치료제의 40~54%대의 완전관해율에 비해 향상된 값이다.

큐로셀은 림카토 임상으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21년 임상 1상 첫 등록군에 대해 5년 추적 관찰을 마치고 올해 2월 장기추적 단계로 진입했다. 특히 임상 1상 초반에 참여한 환자에서 5년간 재발 없이 완전관해를 유지해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했다.

지씨셀도 간암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 후속 파이프라인을 T세포, NK세포 등 차세대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활성화지원사업(R&D)'에서 지씨셀과 건양대학교병원의 'HER2 양성 유방암 대상 CAR-NK 기반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최종 선정됐다.

건양대학교병원 연구팀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동종 유래 CAR-NK 세포를 투여해 안전성과 초기 항종양 반응을 평가한다. 특히 치료가 제한적인 4차 이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면역세포치료 가능성을 탐색한다. 지씨셀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으로 제조한 HER2 CAR-NK 세포 공급을 담당한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의 가장 전통적인 분야는 항암인 상황"이라며 "재생의료 또한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고형암, 희귀병 등으로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올리브영, 120종 상품 '서바이벌 뷰티' 제안

여름철 피부고민 돕는 제품 추천  
스킨케어·색조 등 다양한 영역

CJ올리브영은 오는 7월까지 '서바이벌 뷰티(생존 뷰티)' 캠페인을 진행하고 26일 밝혔다. '서바이벌 뷰티'는 폭염과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은 기후변화로 여름이 앞당겨지고 길어지는 흐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고객들이 겪는 주요 고민을 기준으로 총 120종의 뷰티·웰니스 상품을 자외선 관리, 트러블 관리, 유분·땀

관리, 냉각 제품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하나의 고민에 대해 스킨케어부터 색조, 바다·해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상품을 함께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자외선 관리의 경우,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서로 다른 제형을 아울러 사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리브영은 자외선 관리 제품을 다층적으로 내놓으면서 자외선에 노출된 모발과 손을 위한 헤어 미스트, 핸드케어 상품 등도 제안한다.

또 피부 트러블과 유수분 균형을 개

선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에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는 픽서, 체취 관리를 돕는 데오드란트 등을 복합해 선보인다. 피부 열감을 낮추며 시원한 사용감을 전달하는 쿨링 바다 미스트, 쿨링 샴푸 등도 마련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달라진 피부 고민에 필요한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세분화되는 소비자 요구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 큐레이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유니참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LG유니참, 위생용품 용량 변경 투명 공개

공정위·소비자원과 정보제공 협약

LG유니참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요 위생용품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생용품의 용량 변경 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공개하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특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을 차단한다. 또 가격 안정화를 통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LG유니참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회' 기업으로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지난 22~23일 에티오피아 MCM병원(명성기독병원) 방문 일정에서 김성중 명성국제개발 대표(첫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첫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메디웨이 오준호 본부장(둘째 줄 왼쪽에서 열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 동아ST, 에티오피아 병원 찾아 의료 지원

전문 의약품 전달하고 교육 실시

동아에스티는 지난 22~23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MCM병원과 은과기초진료소를 방문해 해외 현지 의료 지원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MCM병원에 약 1억원 규모의 '닥터눈'을 기부하고 의료진의 디지털 진단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도 실시한다. 닥터눈은 혈관질환 예측 및 안질환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로, 동아에스티와 협업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 메디웨이 일이 개발했다.

은과기초진료소에는 약 5000만원 규모의 전문 의약품을 지원한다. 현지 의료진과 협의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선물세트 선배

아모레퍼시픽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에서 '설레는 설화수' 선물 세트(사진)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브랜드 대표 제품 운조에센스부터 자음생크림 리치까지 다양한 구성을 기획해 연령대와 피부 고민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은, 번영, 길조를 상징하는 제비가 그려진 편지지, 용돈 봉투 등을 동봉해 감사 의미를 더했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제약, 'ADC 플랫폼 기술' 공개

미국암연구학회서 연구 결과 발표  
항원 국한되지 않는 플랫폼 기술력

셀트리온제약은 17~22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신규 파이프라인 CTPH-03, CTPH-08 등을 공개, 독자 구축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력을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의 약물을 하나의 항체에 결합하는 '듀얼-페이로드' ADC 플랫폼을 보유하

고 있다. 해당 기술은 다양한 암세포에서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항암 효과를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CTPH-02부터 이번 CTPH-03, CTPH-08까지 모두 듀얼-페이로드 ADC 플랫폼을 활용한 성과다.

셀트리온제약은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TROP2를 표적하는 'CTPH-03', 염산수용체알파(FR $\alpha$ )를 선택하는 'CTPH-08' 등의 전임상 평가를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킷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네비딱한 천재

#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서울숲서 '내 정원 가꾸기' 첫 식재**  
현대백화점은 지난 25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에서 친환경 기부 프로젝트 '내 정원 가꾸기' 첫 식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내 정원 가꾸기는 현대백화점이 고객과 함께하는 도심 녹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기부 프로젝트로, 고객이 8개 정원 중 희망하는 정원을 선택해 기부하면 현대백화점이 절반의 비용을 후원한다. /현대백화점



**SK바사, 2026 IVI 박만훈상 시상식 개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6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만훈상은 전 세계 예방접종 확대와 백신 형평성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하는 행사로,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풀무원푸드엔컬처, 백석대와 산학협력 MOU**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엔컬처는 백석대·백석문화대와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및 산학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협약식에는 풀무원푸드엔컬처 이동훈 대표와 백석대학교 송기신 총장, 백석문화대학교 이경직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풀무원

**한·베트남 핵심광물 협력 본격화**  
**하노이 기술협력센터 내년 개소**  
KIAT, 하노이서 전략 포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기술협력이 본격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베트남 핵심 광물 협력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KIAT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비롯해 양국 광업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통부의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 사업' 수행기관들이 모여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문을 교환하고, 가공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윤병민 △기능정보기획팀장 김동현 △노동시장조사과장 정향숙 △감사담당관 이경근

**부음**

▲유형열씨 별세, 현철민(프로야구 SSG 랜더스 스카우트팀 파트장)씨 장인상 = 26일, 보은농협장례식장 제2분향소,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43-543-3360

# 삼성전자 '코랄 인 포커스', 국제 어워드 잇단 수상

갤럭시 오션 모드 산호초 복원 지원 UCSD·시트리와 해양보호 프로젝트 헤일로 어워드 지속가능성 부문 금상 국제 해양영화제 다큐멘터리 수상

삼성전자가 갤럭시 카메라 기술인 '오션 모드'를 활용한 산호초 보호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로 주요 국제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어워드 수상은 삼성전자의 환경 비전 '지구를 위한 갤럭시'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속가능성 활동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코랄 인 포커스'로 모바일 기술이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후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의 해양학 연구소 스크립스와 미국 비영리단체 시트리와 함께 갤럭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카메라 기술인 '오션 모드'를 활용한 산호초 보호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로 주요 국제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AI폰을 통해 수집된 다수의 산호초 사진은 스크립스 연구소로 전달돼 3D 산호초 복원도를 제작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지역 활동 단체들은 다시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호초 복원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코랄 인 포커스' 프로젝트는 글로벌 사회공헌 시상 '2026 헤일로 어워드'의 지속가능성·환경보전 부문에

서 금상을 수상하며 산호초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헤일로 어워드'는 글로벌 사회공헌 전문 단체 '인게이지 포 굿'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또 삼성전자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계의 협력과 프로젝트 여정을 담아 제작한 '코랄 인 포커스' 다큐멘터리도 인정받았다.

'코랄 인 포커스' 다큐멘터리는 지난 10일 북미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갖춘 해양 전문 영화제인 '제 23회 국제 해양 영화제'의 '해안 및 도서 문화상'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 바닷속 산호초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수중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모드인 '오션 모드'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했다.

현시 활동가들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오션 모드를 통해 ▲수중 촬영 시 발생하는 과도한 파란색 톤을 줄이고 산호초 본연의 색상을 촬영할 수 있고 ▲셔터스피드 최적화 및 멀티 프레임 영상 처리 기술 기반으로 사진 결과물 내 모션블러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터벌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에 수천장의 고화질 산호초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공영흡소핑, 공공언어 최우수 기관 선정

2년연속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편한 우리말로 소비자와 소통"

공영흡소핑이 '2025 쉽고 바른 공공언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공영흡소핑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공 부문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등 평가'를 진행해 왔다. 공영흡소핑은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단어나 한자, 외국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

했다. 공영흡소핑은 유일한 공공기관 흡소핑으로서 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 '공공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24개 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2024, 2025년 연속 '공공언어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영흡소핑 관계자는 "외래어 사용이 빈번한 유통업계에서 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쉽고 편한 우리말로 소비자와 널리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현대차·기아 비전 펄스, 국제 광고제 수상

어린이 통학 안전 기술 캠페인 호평

기술을 토대로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기아의 노력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대차·기아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높이는 기술 '비전 펄스' 기술 캠페인이 국제 광고제인 원소와 스파이크 아시아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원소 광고제에서는 '지적 재산·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스파이크 아시아에서는 '혁신' 부문에서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비전 펄스는 정밀한 위치·거리 측정에 특화된 초광대역(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한 운전을 돕는 첨단 주행 안전 기술이다.

이 기술은 먼저 차량에 적용된 UWB 모듈이 전파를 발산하고, 주변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



현대차·기아의 비전 펄스 기술 작동 그래픽

행자 등에 UWB 신호를 발산하는 모듈이 있을 경우 양쪽 UWB 모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충돌이 우려된다면 경고를 보낸다. UWB는 ㎒(기가헤르츠)폭의 초광대역 전파를 사용해 정확한 위치를 10cm 오차 범위 내로 파악할 수 있다.

/양성훈 기자 ysw@



BNK부산은행은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BNK부산은행

## 부산은행, 가족 축제 '아이러브 페스티벌'

어린이·가족 등 시민 5000명 참여

BNK부산은행은 지난 25일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및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일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시민 약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대규모 가족형 축제로 진행됐다. 주말 유동 인구가 적은 BIFC 상권 내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해 매장을 운영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아이러브 페스티벌'은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BNK부산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본점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과 나눔이 결합된 참여형 활동으로 의미를 더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한유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11개 사업 부문 모두 목표치 초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26일 한유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한유원은 조사 대상인 11개 사업 부문에서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의 균형 잡힌 성장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태식 대표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고객 체감형 경영'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유원은 고객소통 전담반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소통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임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타 기관 혁신 사례 벤치마킹 등 조직 내 '고객 우선' 문화의 정착에 집중했다.

이태식 대표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고객만족도 매우 우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매절계약 해석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에서 '매절계약(賣切契約)'은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출판사 등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나중에 해당 저작물을 통해 커다란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저작자 측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판사 등은 초기 투자 위험을 부담하므로(즉, 해당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계속 보유하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안은 원고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것이었는데, 음원공급계약에는 '매절'이란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정의를 규정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 및 2심은 모두 위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위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위 음원공급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위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은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음악저작물을 리듬게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상실 등)에 비추 보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실무자로서는 계약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양수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그 계약의 문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 반도체 초격차의 역설... 변수는 '사람'



기지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시선은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에 쏠려 있다. 그러나 사안을 단순히 '라인 가동' 문제로만 보는 접근은 부족하다. 첨단 산업일수록 인력 변수가 더 크게 작동하는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출발점은 성과급 체계다. 회사는 초과이익성급(OPI) 상한을 유지한 채 특별 포상 등 추가 보상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일회성 보상이 아닌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쟁점은 지급 규모보다 보상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신뢰에 가깝다. 갈등은 반도체 경쟁의 축 변화를 드러

낸다. 과거 산업을 지배한 것은 설비와 공정이었다. 더 미세한 공정과 더 많은 생산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의 개입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뒤따랐다.

AI 반도체 경쟁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은 설계-공정-패키징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다. 특정 엔지니어의 숙련도와 조직의 협업 수준이 수율과 성능, 납기 대응까지 좌우한다. 같은 설비를 갖추고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인력 변수의 영향력도 커진다. 설비는 투자로 확보할 수 있지만,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로 연결할 조직과 인력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인력 확보와 유지, 조직 운영 방식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체계에서 사업부 간 실적 편차는 불가피하다. 격차는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성과급 논쟁은 특정 사업부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조직 내부 균열로 번지고 있다.

유사한 흐름은 업계 전반에서도 감지된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인력 확보와 유지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결국 반도체 산업은 또 다른 전환점에서 있다. 공정은 최첨단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인력과 조직에서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기술 경쟁력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AI 시대 반도체 경쟁의 변수는 더 이상 공정만이 아니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7일 (음 3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됩니다. **60년생** 지출이 많겠습니다. **72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84년생** 친절한 전화 한 통화가 당신과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 49년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61년생** 당신의 계절이 왔습니다. **73년생** 너무 외로워 하지 마세요. **85년생**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 50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2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74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51년생** 공적인 일엔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63년생** 이 달 말에는 교통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75년생** 욕심이 좋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87년생** 모든 문서 체결은 지급하세요.
- 52년생** 원기를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4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 보세요. **76년생** 방황하는 당신의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88년생**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 53년생** 깊이 있는 인생을 위하여 한가지 일에 열중하세요. **65년생**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77년생** 옛사랑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89년생** 과음은 절대 하지 마세요.
- 54년생** 객지에서 친구를 만나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66년생** 아무리 원대한 소원이라도 쉽사리 성취됩니다. **78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90년생** 아픈편 빨리 병원에 가세요.
- 55년생** 역시 친구 밖에 없습니다. **67년생**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9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91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56년생** 이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8년생** 사랑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8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92년생**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 57년생**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년생** 여행운과 국외로 나갈 운이 많습니다. **81년생** 내직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93년생** 지나친 생각은 금물입니다.
- 58년생** 미래를 위해서 견문을 확대 시키는 좋은 계기입니다. **70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82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94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 59년생** 지금껏 갖고 묶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71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83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입니다. **95년생** 바쁜 한달을 보낼 것입니다.

# 김상회의 四季 중삼일(重三日) 기도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이름난 기도처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년 365일 중 초하루와 보름날은 불교 신자라면 절에 가서 삼배라도 하고 와야 직성이 풀린다. 더하여 홀수가 겹치는 달과 날은 우리 선조들은 매우 상서로운 날이라 하여 무조건 기도 심이 충천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이어서 만물을 살리니, 하여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같이 양수가 겹치는 날 특히 삼월삼짇날이나 단오날은 나라나 지방 관아의 관리들에게 하루의 휴가를 허락할 정도였다. 더 나아가 형의 집행을 금하는 금형의 날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날이 삼월삼짇날이니, 선조들이 완벽하다고 여기며 좋아한 숫자인 석 삼자가 두 번 겹치는 중삼일(重三日)이라 재수발원 기도를 많이 올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들은 이미 녹아 농염해진 봄기운이 초봄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춘양을 담백 품은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으며 술도 담가 마시니 몸은 순수한 양기로 보호되며 마음은 저절로 즐거워진다. 절기로는 청명이나 한식 근처거나 사이가 된다. 식목일이 바로 삼월삼짇날 근처이기도 한 이유이다. 만물을 살아 올리는 양기가 한껏 충만하게 뻗어 나가는 시기이니 삼월삼짇날 혼사는 길일을 묻고 따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길상한 날이니 기도받은 또 어떠했는가? 재수대통을 염원하며 참 삼재를 올리며 기뻐한 날이듯 민속적으로도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임금님이 친히 제주가 되어 풍년을 기원하며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 나라의 근간 산업이었던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삼월삼짇날은 매우 각별했지만, 현재는 농촌에서도 화전을 부쳐 먹는 일은 찾기 힘들다. 필자는 삼짇날 기도와 축원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8		1	9
	1			6		
8			5			6
5	7	4		8		
			7	6	3	9
	5			1		6
			7			8
4	1			5	2	

### 문제출제: 손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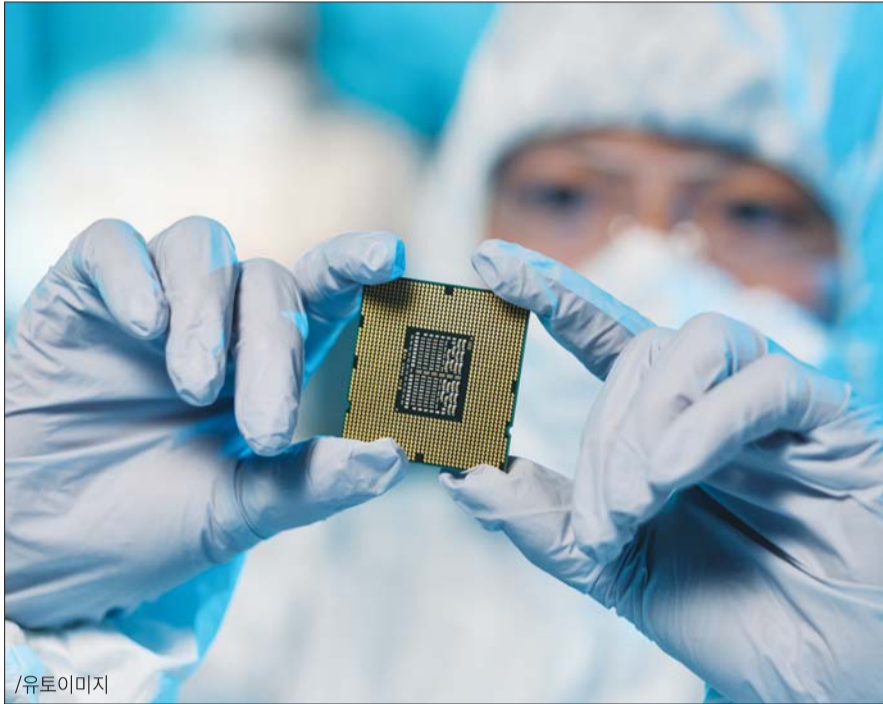
새로운 크고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2	9	8	9	1	7	6
1	8	9	7	2	6	2	9	8
9	7	6	1	8	2	8	9	1
6	9	8	9	2	7	8	1	1
8	2	7	8	9	1	9	6	2
2	1	9	8	6	7	2	8	9
7	9	2	6	1	9	8	2	8
9	2	8	2	9	8	6	1	7
8	6	1	2	7	8	9	1	7
8	6	1	2	6	9	8	7	9
1	2	2	6	9	8	7	9	8
6	7	8	2	8	9	6	1	9
2	7	9	8	9	1	8	7	2
8	9	1	2	7	6	8	2	9
9	1	6	9	2	8	2	8	7
7	9	2	8	1	2	9	8	6
2	8	8	7	6	9	9	2	1

# 연고대 반도체 계약학과 ‘의대급 경쟁’... 수시 합격선 최고

연세대 추천형 합격선 1.14등급  
고려대 학업우수형 1.47등급 기록  
삼성·SK 계약학과 선호 확대  
의대·서울대 공대 쏠림 일부 완화  
2027학년도 10개대 460명 선발



/유투이미지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급’ 상위권 경쟁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추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합격점수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각각 계약을 맺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반도체공학과 의 수시 내신 합격점수가 2021학년도 학과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인 추천형과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고려대는 종합전형인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교과·종합 2개 전형 평균 내신 합격점수가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3.10등급) 첫 선발 이후 가장 높은 합격선이다. 선발한 연세대 교과전형 추천형은 ▲2024학년도 1.47등급 ▲2025학년도 1.20등급 ▲2026학년도 1.14등급으로

상승했다. 연세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은 ▲2021학년도 3.10등급 ▲2022학년도 1.56등급 ▲2023학년도 1.53등급 ▲2024학년도 2.17등급 ▲2025학년도 2.15등급 ▲2026학년도 1.79등급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반도체공학과도 상승세를 보였다. 고려대 종합전형 학업우수형 내신 합격점수는 ▲2021학년도 2.40등급 ▲2022학년도 1.88등급 ▲2023학년도 1.89등급 ▲2024학년도 2.13등급 ▲2025학년도 1.82등급 ▲2026학년도 1.47등급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2021학년도 4.10등급 ▲2022학년도 4.38등급 ▲2023학년도 4.23등급 ▲2024학년도 3.85등급 ▲2025학년도 3.80등급 ▲2026학년도 3.88등급이었다.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평균 기준으로는 ▲2021학년도 3.25등급 ▲2022학년도 3.13등급 ▲2023학년도 3.06등급 ▲2024학년도 2.99등급 ▲2025학년도 2.81등급 ▲2026학년도 2.68등급으로 상승했다.

2026학년도 기준 모집인원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추천형 20명, 활동우수형 38명 등 58명이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학업우수형 14명, 계열적합형 14명 등 28명을 선발했다.

정시에서도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합격점수는 상승했다. 연세대는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교과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인원 10명 제한이 있고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반면, 고려대 학업우수형은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한다.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4배수를 선발하고,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5배수를 선발한다.

2027학년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모집 규모는 총 460명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세대 100명, 성균관대 70명, 한국과학기술원 40명, 울산과학기술원 40명, 광주과학기술원 3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0명, 포항공대 40명 등 7개 대학에서 350명을 선발한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 40명, 서강대 30명, 한양대 40명 등 3개 대학에서 110명을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의대와 서울대 공대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의대와 연고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관심 이동이 일정한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올해 1~12월까지 소급 적용 가능  
납부액 환급, 예정 부과액 감액 처리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 연체료 50%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올해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절차는 사용허가를 한 학교나 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향후 부과 예정 금액은 감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 경기북부서 인천공항 심야버스 달린다

30일 밤 10시 파주 금촌역서 출발  
파주·고양 12개 정류장 거쳐 운행

경기도가 심야 시간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10시 부터 파주와 고양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심야 공항버스를 운행한다.

해당 노선은 파주금촌역을 출발해 파주지역 5개, 고양시 7개 정류장을 거쳐 인천 공항행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된다.

이번 조치는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로 심야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도내 8개 시에서 출발하는 기

존 심야 공항버스, 2025년 이용객은 11만 3천여 명으로, 2024년 10만여 명 대비 약 13% 증가했다.

하지만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권역에는 심야 공항버스가 부족해 이른 새벽 항공편을 타야 할 경우 요금 부담이 큰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날 밤 미리 공항에 도착해 밤을 새우는 불편이 계속됐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노선 개설에 성공했다.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발생 시 양 기관이 재정지원을 50 대 50으로 분담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통합 관광서비스 ‘용인관광플랫폼’ 운영

용인시, 600여개 관광지 정보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통합 관광 서비스 ‘용인관광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번 플랫폼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 주소 입력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서비스로, 600여개

관광지 정보를 기반으로 여행자의 이동과 체험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던 관광 수요를 용인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넓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형 관광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버스 정보와 주차장 현황 등 교통 정보를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용인 투어패스’의 예약과 결제를 플랫폼 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정보 탐색부터 구매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했다. 여기에 최적화된 길 안내 서비스도 더해져 초행길 방문객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포은아트홀 등 지역 문화예술 거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 숙박·체험 예약 플랫폼(OTA)과 협력해 관광 상품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7일(월) 음력: 3월 11일

수도권 날씨 11~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무 / 05:42 | 해짐 / 19:48

지역별 날씨: 연천 8/21, 동두천 9/21, 가평 7/21, 양평 9/21, 용인 10/21, 평택 7/21, 인천 11/19, 수원 10/21, 파주 8/20, 서울 11/21, 백령도 10/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서 충격...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어 /사진 뉴스시  
▲트럼프 “용의자 단독 범행 추정... 이란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

▲미-이란 2차 종전협상 취소... 이란 “호르무즈 봉쇄 지속할 것”  
▲이스라엘, 휴전 협정 지속에도 레바논 공격... 산발적 교전 지속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EU 방위조약, NATO보다 강력할 것”  
▲미국 조지아서 대형 산불... 여의도 54배 면적 산불 피해



유통업계, 야구팬덤 주목 구단 협업 활발  
니



Life

바이젯셀 승인  
국내 재생의료  
상업화 속도  
L2



# “기술 기반 금융사고 대응… 보호-예방 선순환 구조 마련”



새벽을 여는 사람들

## 최승락

토스뱅크 금융소비자보호팀장

“첨단기술로 사기를 막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토스뱅크 최승락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26일 '토스뱅크가 지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출, 투자까지 단 몇 초 만에 완료될 만큼 편리한 금융환경에 살고 있지만 악성 앱, 딥페이크 등으로 금융사기 수법이 정교화되는 시대, '기술과 사람이', '예방과 보호'가 하나의 선순환으로 맞물려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 “피해는 끝까지 책임진다”

최 팀장은 기존 은행과의 차별점으로 '사기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토스뱅크는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기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차단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며 “자체 데이터 분석과 금융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객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안심보상제'도 운영한다.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금융사기나 중고거래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법적 의무 영역 밖의 피해까지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해 왔다.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보상건수는 8845건이다.

최 팀장은 “안심보상제가 단순히 피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사기 예방 시스템으로 환류해, 예방과 보호가 하나의 선순환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 팀장, 사기예방·피해자 보호 강조 데이터 기반 의심거래 선제적 대응 “사고 난 뒤 수습보다 사전차단 지향”

### ◆ 더 똑똑해진 사기…어려워진 대응

최근 증가하는 민원은 무엇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답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문자 속 URL로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과핑 등을 포함한다.

최 팀장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거나 보류하고 있지만, 의심거래에 대해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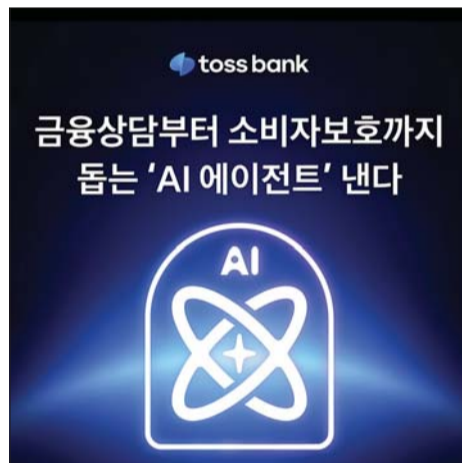
최 팀장은 “은행은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불편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는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은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아이서비스'의 부모등록 방식을 꼽았다. 이전에는 법적 친권자가 두 명이더라도 시스템상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는 함께 아이의 계좌를 살피지 못한다는 목소리에 친권자 두 명을 모두 부모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 팀장은 “시스템 상 친권자 중 다른 한



최승락 금융소비자보호 팀장.



토스뱅크는 'AI 상담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했다. /토스뱅크

명은 자녀의 계좌를 함께 살피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 친권자 두 분 모두 부모로 등록해 아이의 금융생활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뜻 깊었다”고 했다.

### ◆ AI vs AI, 결국 답은 '사람'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종 기술 위험'에 대해서는 '기술과 사람의 결합'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최 팀장은 “기술이 만드는 위협은 결국 기술로 막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머신러닝 탐지 모델에 신종 사기 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안면인증과 금융보안원 AI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공동 방어선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팀장은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은 1~2개월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유형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돼 모든 패턴을 적시에 포착하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런 이유로 내부적으로 '정보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당자가 서류 검증 단계에서 '지난달과 뭔가 다르네'라는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모델 개발팀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이후에는 기술을 통해 다수의 유사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사전 예방' 중심 전환

최 팀장의 올해 목표는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토스뱅크의 올해 목표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의 실효성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전환 ▲금융사기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의 지속 확대 등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소비자보호 기능은 조직도에 위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모범 관행에 따라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목표 '사전예방 강화' 꼽아 안심보상제 등 보호체계 고도화 “핵심전략은 기술과 사람의 결합”

또 탐지 모델 업데이트, 인증 체계 고도화, 업권 간 연계를 통해 예방단계에서 차단하는 비율을 높이는 한편 사기대응팀과 안심보상제를 통해 예방과 보호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고도화하고 있다.

최 팀장은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객이 없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소외되는 고객을 줄여나가는 것은 규제가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챙겨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 26일 은퇴식… 특별 엔트리에도 이름 올려  
▲ LA 다저스 김혜성, 안타 행진에 타율 0.351… 메이저 잔류 가능성 ↑ /사진 뉴시스

▲ '재일교포 2세' 교토 상가 FC 윤성준, 곧 일본 귀화 마무리 전망  
▲ 여자농구 국민은행 통합우승까지 '1승'… 우승 시 구단 통산 세 번째

▲ 남자 배구 우리카드, FA 4명 최종 잔류… 박철우에게 힘 실릴까  
▲ 세계배드민턴연맹, 2027년 15점제 도입… 韓 대표팀도 훈련 방식 변경